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최 배 영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 나전칠기문화 연구

2024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한국문화콘텐츠전공
조 속 희

한국 나전칠기문화 연구

최 배 영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한국문화콘텐츠전공
조 속 희


인 준 서

조속회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4년 6월

심사위원장 고 성 희  (인)

심 사 위 원 김 호 주  (인)

심 사 위 원 최 배 영  (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논문 개요

나전칠기는 우리나라의 전통 옷칠공예의 장식기법 중 하나로 기물에 그 재료의 특성에 맞는 공정에 따라 옷칠을 하고, 그 위에 자개를 장식해 붙인 후 옷칠로 마무리하여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한국의 전통적이고 독창적인 나전칠기문화가 세계 속에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나전칠기문화에 대한 탐구를 통해 문화적 전승의 가치를 조명하고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는 2024년의 시점에서 국가무형유산 제10호 이형만 나전장, 2명의 이수자, 4명의 교육생과 한국 나전칠기문화의 전승과 변화에 대한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자는 면접에 앞서 이들 대상자와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면접 참여 의사를 연구동의서로 확인하였으며, 면접은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일대일로 대면해서 반구조화 면접으로 진행하였다. 수집된 응답 자료는 나전장의 생애와 전승, 나전칠기의 재료와 도구, 나전칠기의 줄임질 기법 그리고 나전칠기문화의 변화와 발전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 첫째, 나전장 이형만은 끊임없는 연구 개발, 변화하는 물결에 대한 적응 그리고 작품에 대한 정직한 노력의 중요성을 나전칠기를 만드는 철학으로 갖고 있으며, 그의 뒤를 이어 이수자들과 교육생들이 나전칠기를 전승하고 있었다.

둘째, 나전장은 나전칠기의 재료인 백골과 자개를 고르는 안목을 중요시했으며, 재료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작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 또한 자신이 제작하는 나전칠기 작품의 필요에 따라 적합한 도구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셋째, 나전칠기 제작 중 나전장의 줄음질 기법은 45단계의 인내가 요구되는 과정에서 한 공정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또한 용도에 맞게 제작된 나전칠기가 변함없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계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넷째, 나전장과 이수자들 그리고 교육생들은 나전칠기를 제작하는 전통기법은 지속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는 반면 사용되는 재료와 도구, 나전칠기에 대한 소비자들이 가치 인식 그리고 이들의 선호에 따른 디자인과 문양에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상으로 볼 때 한국 나전칠기의 문화적 전승은 여러 세대에 걸쳐 공동체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재창조하며 전수해온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적 가치와 우수한 공예 기술이 응집된 유형문화유산으로서의 예술적 가치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나전칠기는 본래 인간에게 무해한 천연의 재료와 수공예 기법으로 제작이 이루어져 왔던 점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적 가치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내재한 한국 나전칠기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유한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여러 창구가 마련되어 다방면에서 전승 교육이 이루어져야 전통을 잃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다. 또한 나전칠기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나전칠기 제작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구상·색감·조화에 대한 연구 노력도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대중들이 나전칠기를 장인의 정신이 담긴 공예품으로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나전칠기를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체험교육의 장이 형성되어야 하며, 나전칠기문화의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가 이루어져 일반인들의 가치 판단과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나전칠기가 국내에서 뿐 아니라 해외에서 K-Craft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상품의 산업적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도 요구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3
II. 한국의 나전칠기문화	5
1. 나전칠기의 개념 및 분류	5
2. 나전칠기 문화유산의 역사적 변천	13
3. 나전칠기 제작의 기법과 과정	29
4. 나전칠기에 대한 선행연구	42
III. 한국 나전칠기문화의 전승과 변화	46
1. 나전장의 생애와 전승	46
2. 나전칠기의 재료와 도구	50
3. 나전칠기의 줄임질 기법	56
4. 나전칠기문화의 변화와 발전	60
IV. 결론 및 제언	70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I -1>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
<표 II -1> 국립민속박물관의 용도별 자개와 나전 소장품 분류	8
<표 II -2> 국립민속박물관의 시대별 자개와 나전 소장품 분류	9
<표 II -3> 나전칠기의 문양 분류	12

그림 목 차

〈그림 II-1〉 국보 나전화문동경	17
〈그림 II-2〉 보물 나전경함	18
〈그림 II-3〉 국가 등록 문화재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18
〈그림 II-4〉 국가민속문화재 전 순정효황후 주칠 나전가구	19
〈그림 II-5〉 시도유형문화유산 부산시 나전함	21
〈그림 II-6〉 시도유형문화유산 부산시 나전국화모란넝쿨무늬상자	21
〈그림 II-7〉 시도문화유산자료 나전대모쌍룡문함	22
〈그림 II-8〉 줄음질	31
〈그림 II-9〉 끊음질	32
〈그림 II-10〉 타찰법	32
〈그림 II-11〉 타발법	33
〈그림 II-12〉 활패법	33
〈그림 II-13〉 시패법	34
〈그림 II-14〉 조패법	34
〈그림 II-15〉 백골 다듬기	37
〈그림 II-16〉 백골 위 생칠하기	37
〈그림 II-17〉 생칠 위 토회칠하기	37
〈그림 II-18〉 삼베 바르기	37
〈그림 II-19〉 삼베 위 생칠하기	38
〈그림 II-20〉 토회로 삼베 눈 메우기	38
〈그림 II-21〉 토회칠하기	38
〈그림 II-22〉 토회 물 갈기	38

<그림 II-23> 물 갈기 후 흑칠하기	39
<그림 II-24> 나전 문양 붙이기	39
<그림 II-25> 나전 위 생칠하기	39
<그림 II-26> 생칠 위 토회칠하기	39
<그림 II-27> 나전 문양 숫돌 갈기	40
<그림 II-28> 나전 위 생칠하기	40
<그림 II-29> 생칠 위 토회칠하기	40
<그림 II-30> 초칠 갈기	40
<그림 II-31> 중칠 후 토회칠하기	41
<그림 II-32> 중칠 갈기	41
<그림 II-33> 상칠 및 자개 긁기	41
<그림 II-34> 광내기	41
<그림 III-1> 나전연상(좌)과 봉황 문양(우)	52
<그림 III-2> 생칠	53
<그림 III-3> 자개	53
<그림 III-4> 칠 붓	53
<그림 III-5> 베	53
<그림 III-6> 찻쌀풀	54
<그림 III-7> 주걱	54
<그림 III-8> 조각칼	54
<그림 III-9> 편셋	54
<그림 III-10> 아교	55
<그림 III-11> 클램프	55
<그림 III-12> 거치대	55
<그림 III-13> 끌	5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경제적 풍요로 인해 문화적 소양이 증진됨에 따라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고유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취향이 세분화 되어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K-Culture가 주목을 받으면서 전통공예인 나전칠기문화가 한류 문화의 체험 주제로 이목을 끌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국관광공사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신규 예능 프로그램으로 ‘코리아 넘버원¹⁾을 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포함한 ‘한류 투어 코스’를 선보이며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투어 코스에 나전칠기에 대한 체험이 포함되었던 것이다.²⁾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23년 동안 전통공예 소품 트렌드를 살펴본 결과에 있어서도 인기 검색순위 Top 500 가운데 1위부터 20위까지 사이에 나전칠기 관련 품목이 3개가 포함되어 ‘나전칠기’ 5위, ‘자개’ 9위, ‘자개공예’ 13위의 순위로 나타났다.³⁾ 이는 나전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측면이다.

특히 레트로(retro)의 열풍으로 옛것에 대한 향수 덕분에 한때는 버려지곤 했던 자개장이 다시금 귀한 공예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는 나전칠기를 배우고자 하는 교육생의 수가 최근 이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⁴⁾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나전칠기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어 K-Craft의 일

1) 2022년 오티티(OTT)용 8부작 ‘코리아 넘버원’의 회차별 소재는 기와(장흥), 장(담양), 갯벌(신안), 모시(서천), 죽방렴 멸치(남해), 쪽빛(나주), 막걸리(부산), 나전칠기(원주)였다.

2) 민중의소리, <https://vop.co.kr/A00001624154.html>(검색일: 2024.3.29.)

3) 네이버데이터랩, <https://datalab.naver.com/>(검색일: 2024.3.29.)

환이 되고 있고 한국 관광을 위한 문화상품으로도 나전칠기가 비중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나전칠기는 국가 브랜드이미지로서 국격을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상품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나전칠기문화가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한국 전통 공예문화의 일환으로서 독창성과 우수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전칠기문화를 전승하고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현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비롯해 일반 교육생들도 나전칠기문화에 대한 통시적 이해를 갖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 전통적인 방법과 아닌 것의 차이를 간과하기 쉽다. 또한 나전칠기, 옷칠, 자개 등의 용어가 혼용되면서 제작과정 중에 사용되는 용어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설명을 이해하는 데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통공예의 기능을 전수하는 장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공예와 예술을 별개로 간주하거나 기능을 가진 장인들에 대한 처우가 빈약한 상황이다. 나아가 전통적인 나전칠기 제작 과정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인공적인 화학재료가 사용된 기물을 전통기법으로 잘못 수용하기도 한다.

이에 나전칠기문화의 전통을 올바르게 조명하고 보전 및 발전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전칠기문화의 변화와 발전적 토대에는 반드시 그 원형의 보전과 문화적 가치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나전칠기문화에 대한 탐구를 통해 현시점에서 나전칠기의 문화적 전승의 가치를 조명하고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4) 나전장과 이수자의 인터뷰 조사(2024. 4. 29.)

5) 노유경(2022), 가치사슬 관점에서 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공예문화산업 진흥 정책 사업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나전칠기문화의 전승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중요무형문화재(국가무형유산) 제10호 나전장과 이수자 2명 그리고 교육생 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성(표 1-1)을 살펴보면 나전장은 70대 남성으로 1996년 12월 10일에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원주와 서울에서 후학 양성과 작품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수자 A는 40대 남성으로 원주와 서울에서 교육과 창작활동을 하고 있고, 이수자 B는 50대 여성으로 원주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생 A는 20대 여성으로 현재 서울에서 교육과 상품개발을 하고 있고, 교육생 B는 40대 여성으로 춘천에서 활동하며 주로 창작과 공부에 매진하고 있

〈표 1-1〉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경력	활동지역	활동분야	면접일	
1	나전장	남	70대	64년	원주, 서울	교육 및 창작	2024. 4. 22, 2024. 4. 29
2	이수자 A	남	40대	15년	원주, 서울	교육 및 창작	2024. 4. 22 2024. 4. 29
3	이수자 B	여	50대	20년	원주	교육 및 창작	2024. 5. 6
4	교육생 A	여	20대	2년	서울	교육 및 상품개발	2024. 4. 22
5	교육생 B	여	40대	3년	강원	창작	2024. 4. 22
6	교육생 C	남	50대	5년	서울	교육 및 창작	2024. 4. 29
7	교육생 D	여	30대	6년	서울	창작	2024. 5. 6

다. 교육생 C는 50대 남성으로 서울에서 교육과 창작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생 D는 30대 여성으로 서울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자는 면접에 앞서 이들 대상자와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면접 참여 의사를 연구동의서(부록 1, 부록 3)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면접은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일대일로 대면해서 반구조화 면접(부록 2, 부록 4)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나전장과는 2024년 4월 22일과 4월 29일에 면접을 하여 나전칠기에 대한 철학, 나전칠기 제작과정, 나전칠기 기법·재료·도구의 과거와 현재, 제작하는 기물의 과거와 현재, 기술 전수 상황, 나전칠기문화 전승의 어려움, 나전칠기문화가 발전되기 위해 필요한 노력, 이수자와 교육생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수자 A와는 2024년 4월 22일과 4월 29일에 면접이 진행되었고 이수자 B와의 면접은 2024년 5월 6일에 이루어졌다. 교육생들과의 면접은 2024년 4월 22일에 교육생 A와 교육생 B, 4월 29일에는 교육생 C, 5월 6일에는 교육생 D와 각각 시행되었다. 이들 이수자와 교육생을 대상으로는 나전칠기의 가치, 나전칠기문화가 전승되어야 하는 이유, 나전칠기 제작기법 중 변화가 필요한 점, 나전칠기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질문하였다.

연구자는 면접이 이루어지는 동안 각 면접대상자의 응답을 녹음하였으며 이를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나전장의 생애와 전승, 나전칠기의 재료와 도구, 나전칠기의 줄임질 기법, 나전칠기문화의 변화와 발전으로 응답 내용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II. 한국의 나전칠기문화

1. 나전칠기의 개념 및 분류

1) 나전칠기의 개념

나전칠기는 우리나라의 전통 옷칠공예의 장식기법 중 하나로 기물에 그 재료의 특성에 맞는 공정에 따라 옷칠을 하고, 그 위에 자개를 장식해 붙인 후 옷칠로 마무리하여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옷칠이 된 바탕에 자개를 올리고 다시 옷칠을 한 뒤 표면을 연마해 자개 무늬가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나전에는 칠이란 용어를 붙여 흔히 ‘나전칠기(螺鈿漆器)’로 통용되고 있다.⁶⁾

현재 칠, 옷, 옷칠, 나전, 자개, 나전칠기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므로 각각의 정확한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칠(漆)’은 옷, 옷칠을 뜻하는 한자어이다. ‘옷’은 옷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뜻하는 우리말이며 이 옷을 정제, 가공한 후 바탕 재료에 칠하는 것을 ‘옷칠’이라고 한다.⁷⁾

‘나전(螺鈿)’은 소라 ‘나(螺)’와 비녀 ‘전(鈿)’의 뜻을 지닌 한자어로 보배롭게 꾸민 그릇을 의미한다. 이는 얇게 썰어낸 소라나 전복 껍질 등의 각종 조개껍데기 조각으로 길게 썰거나 오려낸 것을 표면에다 옷칠로 붙여 꾸미는 장식기법이다.⁸⁾ ‘자개’의 어원은 고려시대 「계림유사(鷄林類事)」⁹⁾에 ‘나왈개개(螺曰蓋慨)’라는 기록과¹⁰⁾ 조선시대 이규경의 「오주연문

6) 이종석(1998), 한국의 전통공예, 열화당, p.53.

7) 조훈상, 김미라, 김정은, 이희승(2021), 한눈에 보이는 옷칠,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p.14.

8) 최예중(2017), 전통소재의 나전칠기 기법을 활용한 가구디자인 선호도 조사 분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권상오(2015), 나전공예, 대원사, p.6.

9) 「계림유사」는 중국 송나라(960~1279년)의 손목이 고려의 제도, 풍속, 구선(口宣)과 고려어

장전산고(五洲衍文長箭散稿)」¹¹⁾에도 ‘본속이구자위자개(本俗以具自爲紫蓋)’라고 하여 자개(紫蓋)라고 기록된 음차가 있다.¹²⁾ 「월인석보(月印釋譜)」¹³⁾에는 전나(鈿螺)는 그릇에 꾸미는 빛난 조개로 풀이되어 세월이 가면서 나전에 쓰이는 전나(鈿螺)를 조개와 구별하여 자개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이 있다.¹⁴⁾ 우리나라에서는 ‘자개’라는 고유어를 사용했으며 그것을 만드는 일을 ‘자개박이’ 또는 ‘자개를 박는다’고 하였다.¹⁵⁾

다음으로 ‘나전칠기(螺鈿漆器)’는 한자어 그대로 조개껍질을 오려 붙여 장식한 옷칠 기물을 말한다. 현재 국가무형유산원에서는 나전장과 칠장을 따로 구분하여 지정하였으므로 옷칠과 나전칠기에 대한 용어의 개념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나전칠기는 나무로 된 기물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주재료인 옷칠과 자개는 순수 우리말로 천연재료이다. 현대에 들어서 나무로 된 기물뿐만 아니라 옷칠의 특성과 자개의 미학적인 특성을 살려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브랜드와 작가의 협업으로 상품의 디자인이 개발되기도 하고 실용품에서부터 장식품, 의류, 관광 상품, 자동차, 회화에 이르기까지 활용 영역이 확장되고 있어 나전칠기문화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약 360어휘를 모아 편찬한 전문록이자 어휘집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main>(검색일: 2024.4.20.)

10) 이종석(1994) 한국의 전통공예, 열화당, p.52.

11)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이규경(1788~1856)이 조선과 중국 청나라의 여러 책들의 내용을 정리하여 편찬한 백과사전이다.

12) 정해조(2006), 나전장, 국립문화재연구소, 민속원, p.11.

13) 「월인석보」는 조선전기 제7대 왕 세조(재위 1455~1468)가 세종(재위 1418~1450)의 「월인천강지곡」과 자신이 지은 「석보상절」을 합편하여 1459년에 간행한 불교서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main>(검색일: 2024.4.20.)

14) 권상오(1996), 나전공예, 대원사, p.6.

15) 이종석(1994), 한국의 전통공예, 열화당, p.52.

2) 나전칠기의 분류

(1) 용도별 분류

나전칠기는 전통옷칠공예의 장식기법으로 어떠한 형태이든 문양이 장식되어 있고 그 문양의 성격에 따라 용도도 다르게 사용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생활문화 속에 나타난 나전칠기의 용도를 살펴보고자 국립민속박물관¹⁶⁾ 소장품의 용도별 분류에 의거하여 자료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II-1>에서와 같이 용도별 분류는 ‘자개’와 ‘나전’으로 구분되어 분류되었고 ‘자개’와 ‘나전’의 의미도 달랐다. ‘자개’는 재료의 개념으로 분류된 것이고 ‘나전’은 장식기법의 개념으로 명시되어 ‘자개’로 분류된 소장품이 ‘나전’으로 분류된 것보다 소장품이 더 많았다.

재료의 개념인 ‘자개’ 소장품은 총 603점이었고 용도별로 분류하였을 때 산업/생업 275점, 주생활 206점, 식생활 73점, 문화예술 35점, 사회생활 6점, 의생활 4점, 미디어 2점, 교통/통신 1점, 전통과학 1점이 있었다. 반면 장식기법의 개념인 ‘나전’ 소장품은 총 427점이었고 용도별로 분류하면 산업·생업 276점, 주생활 111점, 문화예술 16점, 식생활 15점, 군사 3점, 의생활 2점, 사회생활 2점, 교통·통신 1점, 과학기술 1점이었다.

이 가운데 ‘자개’와 ‘나전’의 검색에 따라 분류된 소장품 중 생활문화와 관련하여 주생활로 분류된 소장품에서 나전은 111점, 자개는 206점이었는데 포함된 기물들은 혼수함, 빗집, 문갑, 경상, 이층농, 자, 벼루함, 경대, 재봉틀, 실패 등의 생활용품이었다. 식생활에서는 나전 15점, 자개 73점으로 수량의 차이가 컸는데 소반과 식기가 주를 이루었다. 문화생활에 있어서는 나전 15점, 자개 35점으로 소장품은 벼루, 화로, 상자, 반짚고리 등이었다.

16) 국립민속박물관, <https://www.nfm.go.kr/home/index.do>(검색일: 2024.4.16.)

이로 보아 자개와 나전은 산업/생업에서부터 생활 기물에까지 쓰임새가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식기법이 들어간 나전이 자개에 비해 소장품이 적은 것은 공정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공예품으로 희소성이 높은 이유로 추정된다.

〈표 II -1〉 국립민속박물관의 용도별 자개와 나전 소장품 분류

구분	‘자개’ 로 검색		‘나전’ 으로 검색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장품	산업/생업 (275)	재래공업(272), 어업(3)	산업/생업 (276)	재래공업(274), 상업(2)
	주생활 (206)	생활용품/가전(206)	주생활 (111)	생활용품/가전(111)
	식생활 (73)	음식기(73)	식생활 (15)	음식기(15)
	문화예술 (35)	공예(33) 음악(1) 서화(1)	문화예술 (16)	공예(10), 음악(4) 서화(1), 놀이/여가(1)
	사회생활 (6)	기념(5), 의례생활(1)	사회생활 (2)	의례생활(1), 사회제도(1)
	의생활 (4)	장신구(3), 보관/휴대(1)	의생활 (2)	장신구(1), 보관/휴대(1)
	미디어 (2)	아카이브(1). 광고(1)	-	-
	교통/통신 (1)	통신(1)	교통/통신 (1)	마구(1)
	전통과학 (1)	천문(1)	과학기술 (1)	기타(1)
	-	-	군사 (3)	장비(3)
	계	603		427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https://folkency.nfm.go.kr/main>(검색일: 2024.5.19.)

한편 산업/생업에 분류된 나전의 소장품에는 도안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국립민속박물관의 소장품에 나전 도안이 많은 것은 근대에 들어 나전 칠기 제작에 있어 문양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했음을 반영한다. 즉 나전 도안은 공예의 근대성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데¹⁷⁾ 현대에 들어서도 전통기법에 다양한 도안을 적용하여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나전칠기를 제작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자개’와 ‘나전’ 소장품을 시대별로 분류 <표 II-2> 하였다. ‘자개’로 분류했을 때는 조선 107점, 일제강점 83점, 광복 이후 372점, 2000년 이후 14점, 시대 미상 1점이었다. ‘나전’으로 분류했을 때는 조선 65점, 일제강점 30점, 광복 이후 307점, 2000년 이후 3점으로 분류되었다. 이렇듯 광복 이후의 ‘나전’과 ‘자개’ 소장품이 가장 많음을 볼 때 이 시기부터 대중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II-2> 국립민속박물관의 시대별 자개와 나전 소장품 분류

구분	‘자개’로 검색		‘나전’으로 검색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장품	한국	조선(107)	한국	조선(65)
		일제강점(83)		일제강점(30)
		광복 이후(372)		광복 이후(307)
		2000년 이후(14)		2000년 이후(3)
		시대 미상(1)		-
		미지정(26)		미지정(22)
계	603		427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https://folkency.nfm.go.kr/main>(검색일: 2024.5.19.)

17) 최공호(2017), 金奉龍의 나전기술과 근대 공예적 성취, 미술사연구 32, p.178.

(2) 문양별 분류

문양이란 일반적으로 물건의 표면에 장식되어진 여러 가지 모양을 뜻한다.¹⁸⁾ 인류의 시작과 함께 무엇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본능에서 문양은 자연스럽게 발전하였으며 정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¹⁹⁾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나전칠기는 자개로 결면을 장식한 기물로 여기에 장식된 문양들은 그 자체로서의 아름다움 외에도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예술적인 미와 함께 변화, 발전하며 문화적 가치로서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나전칠기에 장식된 문양 중 식물문양, 동물문양, 문자문양, 자연산수문양으로 분류하여 각 문양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예로부터 한국의 전통문양으로는 꽃과 식물, 동물, 문자, 자연산수, 기하학적 문양 등이 사용되었으며 나전칠기의 문양에도 이들 문양이 주로 소재가 되었다. 식물 문양에는 연화, 국화, 모란 등의 꽃과 포도, 석류 등의 과일을 소재로 하는 문양들이 있다. 이 가운데 연화 문양은 종교적인 상징성뿐만 아니라 강인한 생명력과 청결, 순결, 재생의 의미를 내포하며, 제례나 의례용 기물에 주로 장식이 되었다. 포도와 석류 등과 같은 과일류에 속하는 식물 문양은 풍요와 자손 번창, 장수,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주로 생활기물에 표현되었다. 꽃문양은 꽃 하나만으로도 문양으로 장식이 되지만 넝쿨, 새, 곤충, 문자 등의 문양과 함께 조합²⁰⁾해서도 활용되었다.

동물 문양은 단순히 형태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상징성을 표현하기도 한다.²¹⁾ 예를 들어 용과 봉황은 왕권의 권위를 상

18) 한국문화정보원, <https://www.kcisa.kr/>(검색일: 2024.4.23.)

19) 문화포털, <https://www.culture.go.kr/home/index.do>(검색일: 2024.4.23.)

20) 유희정(2022), 조선 후기 책가도의 책갑 문양을 활용한 문화상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5.

징하여 왕실에서 사용되었는데 용 문양은 왕의 권위를 나타냈고 봉황 문양은 우아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²²⁾ 왕비가 사용한 빗집과 함 등에 표현되었다. 물고기, 박쥐, 새 등은 입신양명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로서 이러한 문양은 후대에 일반 서민들이 사용한 기물에서도 볼 수 있다.

문자 문양은 기물에 문자를 새김으로써 그 글자의 의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다.²³⁾ 주로 표현된 문자는 수(壽), 복(福), 강(康), 녕(寧), 부귀(富貴), 희(囍) 등이 있으며 이는 수복(壽福), 강녕(康寧), 자손의 번창 등을 기원하기 위해 새겨 넣었다.²⁴⁾

자연산수 문양은 자연을 소재로 한 무늬로 고대로부터 하늘을 표현할 때 해 달, 별, 구름 등을 나타내었다.²⁵⁾ 또한 비슷한 의미의 무늬를 혼합하여 배열하거나 다른 의미의 소재를 조합해 새로운 상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해, 구름, 산, 돌, 물, 학, 거북, 사슴, 소나무, 불로초를 일컫는 십장생 문양은 모두 장수를 의미하는데 함께 표현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냈다. 갈대와 물고기 등과 같이 각각의 다른 의미를 지닌 문양은 서로 조합하여 장수의 뜻을 지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나전칠기에 사용된 문양은 단순히 장식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삶에서 추구한 집단적인 의식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의미와 미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나전칠기는 우리 민족이 지향한 고유한 미적 감각이나 사상과 같은 문화의 전달자로서의 가치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 문화포털, <https://www.culture.go.kr/home/index.do>(검색일: 2024.4.23.)

22) 임영주(2011), 한국의 전통문양, 대원사, p.97.

23) 문화포털, <https://www.culture.go.kr/home/index.do>(검색일: 2024.4.23.)

24) 임영주(2011), 한국의 전통문양, 대원사, p.15.

25) 임영주(2011), 한국의 전통문양, 대원사, pp.24-46.

〈표 II-3〉 나전칠기의 문양 분류

대분류	중분류	의미
식물문양	국화	지조, 절개, 장수
	연화	순결, 환생
	모란	부귀영화, 아름다움
	당초	힘찬 전진, 강인함, 장수
	매화	미덕, 정결, 고결, 행복, 장수, 지조, 절개
	난초	청렴결백, 절개, 검소
	대나무	군자의 품격, 충·효
	포도	자손 번창, 풍요
	석류	자손 번창, 풍요
동물문양	용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왕권의 권위
	봉황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평화, 번영, 권위
	박쥐	행복
	잉어	끈기, 인내, 성공, 임신양명
	학	장수, 부부 금슬
	나비	즐거움, 행복
문자문양	만(萬)	장수, 만복
	수(壽)	장수
	복(福)	행복
	강(康)	건강
	녕(寧)	안녕
	희(囍)	행복
자연산수문양	구름	풍년, 장수, 상승 기운, 성스러운
	파도	생명력, 변화
	해	풍요, 수복, 장수
	달	풍요, 수복, 장수

2. 나전칠기 문화유산의 역사적 변천

1) 나전칠기 문화유산의 의의

문화유산이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일컫는다.²⁶⁾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문화’를 ‘문화유산’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에서 ‘유산(遺産)’의 개념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법은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포함한다.²⁷⁾

이 논문에서 다루는 나전칠기 문화유산에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나전장과 유형문화유산으로서 국보, 보물, 국가등록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하였다.

(1) 무형문화유산과 나전장

무형문화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온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이다.²⁸⁾ 전통적으로 나전칠기는 기물을 만드는 백골장과 그 기물에 옷칠을 하는 칠장 그리고 자개를 문양대로 올려 칠 바탕에 붙이는 나전장으로 분업화되어 완성이 되었다. 나전장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중앙 관서에 속하여 왕실과 관(官)의 요구에 따라 나전칠기를 만들어 왔으며, 칠장이 경공장²⁹⁾과 외공장³⁰⁾에 다수 배

26)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main/?v=1719120084849>(검색일: 2024.4.1.)

27) 국립문화재연구, <http://portal.nrich.go.kr/kor/index.do>(검색일: 2024.4.1.)

28)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main/?v=1719120084849>(검색일: 2024.4.1.)

29) 조선시대의 경공장은 왕실과 정부 관서에 소속되어 각종 수공품을 제작하던 장인층을 말한

치된 것에 반해 나전장은 경공장에만 두었다. 이는 자개가 왕실을 위한 기물들을 만드는 데 쓰였기 때문이고 조선 후기부터는 점차 일반 계층으로 보급이 되었다.

나전칠기 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독창적인 문화로서 가치가 크므로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³¹⁾에 의거해 1966년에 나전칠기장을 무형문화재로 지정,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무형문화재 지정은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³²⁾ 1975년과 1979년에는 나전의 주요 기법인 줄음질과 꿇음질로 분리하여 무형문화재 꿇음질을 지정하였다. 1995년부터는 나전칠기장이 나전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줄음질과 꿇음질을 통합해 각 분야에 보유자를 지정하게 되었다.³³⁾

2024년 5월 17일부터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무형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³⁴⁾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나전장은 나전칠기 제작기능을 갖춘 장인 즉 옷칠이 되어 있는 기물의 표면에 나전 문양을 장식하는 일을 하는 장인을 일컫는다.

(2) 유형문화유산과 나전칠기

2024년 3월 22일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문화유산)」에서는 유형문화재를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

다.[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www.aks.ac.kr/index.do>(검색일: 2024.5.20.)]

30) 외공장은 지방 관서에 소속되어 수요 물품의 제작을 담당한 지방 기술자를 말한다[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www.aks.ac.kr/index.do>(검색일: 2024.5.20.)]

31)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라는 명칭은 재화의 개념으로 한정돼 인식되었으나 앞으로는 유네스코 체계에 맞춰 무형유산으로 부르게 된다.

3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검색일: 2024.4.1.)

33)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main/?v=1719120084849>(검색일: 2024.4.1.)

34)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main/?v=1719120084849>(검색일: 2024.4.1.)

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³⁵⁾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나전칠기는 국보 1점, 보물 1점, 국가등록문화재 1점, 시도등록문화재 1점, 국가민속문화재 1점, 시도유형문화재 2점이다.

① 국가 유형문화유산

국가의 유형문화유산에는 국보, 보물, 국가등록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로 나뉘어 등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국보 제140호(그림 II-1)로 지정된 나전화문동경(螺鈿花文銅鏡)은 나전기법의 화려함을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물이다. 나전화문동경의 뒷면은 야광패와 전복 등의 자개를 사용하여 둥글게 모양을 만들고 그 안은 작은 꽃 모양들로 장식하고, 꽃잎 안에는 호박을 박아 놓았다.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여 각각 사자와 새를 배치하였는데, 문양의 여백에는 푸른색 옥을 박았다.³⁶⁾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사적 가치가 크고 유례가 희소한³⁷⁾ 나전화문동경은 8~10세기경 통일신라의 나전기법의 화려함과 나전칠기의 사용에 대하여 유추할 수 있다.

보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나전경함(螺鈿經函)이 있다. 나전경함(그림 II-2)은 두께 약 1cm의 곧은결 침엽수 판재로 뚜껑 윗부분의 각 모서리를 모죽임한 장방형의 상자 형태이다. 이는 고려시대 대장경(大藏經) 등 불교 경전류를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에는 다량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존하는 공예품은 20점이 채 안 되고 그중에서 경함은 9점만 남아³⁸⁾ 더 희소가치가 있다. 경함의 연결된 부분에는 쇠못을

3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검색일: 2024.4.1.)

36) 정해조(2006), 나전장, 국립문화재연구소, 민속원, p.264; 권상오(2015), 나전공예, 대원사, p.11.

37)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main/?v=1719120084849>(검색일: 2024.4.1.)

박아 고려시대 백골의 짜임 양식을 보여주며, 백골 위에는 천을 바르고 그 위에 골회(骨灰)를 입혀 자개를 부착한 후 옷칠을 여러 번 하여 마감하였다. 여기에 나전을 잘게 잘라 꽃문양을 만들어 율동적인 통일감 있는 문양을 구성하였고, 다양하고 화려한 무늬로 장식하였다. 나전경함은 고려의 탁월한 나전기법이 응집된 작품이다.³⁹⁾

국가등록문화재⁴⁰⁾로는 경상남도 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가 있다. 경상남도 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그림 II-3)는 조선시대 통제영의 12공방의 맥을 이어 설립된 나전칠기 공예의 효시로 2020년 12월 31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재되었다. 이곳은 해방과 전쟁기를 거치며 문화재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나전칠기 미술교육을 먼저 실행하자는 문화예술인들의 건의에 의해 1951년 10월 통영에 설립되었다.⁴¹⁾ 교육내용은 옷칠칠기, 나전칠기, 소묘, 디자인 도안, 정밀묘사, 설계제도 등 전문공예교육이 실시되어 근현대 공예의 산실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⁴²⁾

국가민속문화재⁴³⁾로는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후 순종비(純宗妃)인 순정효황후(1894~1966)가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는 나전가구들로 근대의 유물에 해당된다. 이들 주칠 나전가구(그림 II-4)는 나전 침대 1점, 나전 삼층장 1점, 나전의(衣)걸이장 2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출신으로 통영에서 신성공예사를 설립해 운영한⁴⁴⁾ 나전공예가 김진갑(金鎭甲, 1900~1972)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가구에 장식된 문양은 조선말기 화가들의 작품을 밑

38)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site/main/home>(검색일: 2024.4.28.)

39)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main/?v=1719120084849>(검색일: 2024.4.5.)

40) 국가등록문화재는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 중 제작·형성·건설된 후 50년 이상의 것으로 보존 및 활용이 필요하여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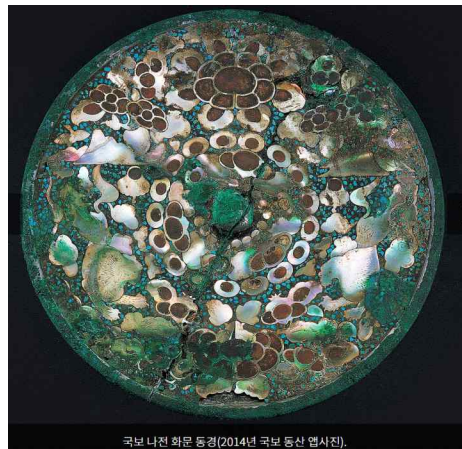
41) 통영옷칠미술관, <https://tyottchil.modoo.at/>(검색일: 2024.4.5.)

42)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main/?v=1719120084849>(검색일: 2024.4.5.)

43) 국가민속문화재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지정되지 않았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것을 시·도지사가 등록한 문화유산이다.

44) 한단아(2020), 일제강점기 나전칠기 정책과 제작 연구, 무형유산 9, p198.

그림으로 사용해 예술적 가치가 돋보인다.⁴⁵⁾ 일반적으로 공예품은 낙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생활용품으로 사용했고 누가 제작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전 순정효왕후 주칠 나전가구(傳 純貞孝皇后 朱漆 螺鈿家具)는 제작자가 확실하며 화가의 그림을 도안으로 사용한 점과 일본의 공예 기법을 도입한 점에서 근대적 특징을 보인다.⁴⁶⁾



〈그림 II-1〉 나전화문동경

출처: <https://www.museum.go.kr/site/main/home>(검색일: 2024.4.28.)

45)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main/?v=1719120084849>(검색일: 2024.4.9.)

46) 이선주(2019), 순정효황후 주칠나전가구의 제작기법적 고찰, 미술사연구 36(36), p.33.



〈그림 II-2〉 나전경함

출처: <https://www.museum.go.kr/site/main/home>(검색일: 2024.4.28.)



〈그림 II-3〉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출처: <https://www.heritage.go.kr/main/?v=1719120084849>(검색일: 2024.4.28.)



〈그림 II-4〉 전 순정효황후 주칠 나전가구

출처: <https://www.heritage.go.kr/main/?v=1719120084849>(검색일: 2024.4.28.)

② 시도지정 유형문화유산

시도지정 유형문화유산에는 시도유형문화유산⁴⁷⁾과 시도문화유산자료가 포함된다. 이 가운데 나전칠기의 시도유형문화유산에는 부산광역시의 나전함과 나전칠국화모란넝쿨무늬상자가 지정되어 있다.

먼저 나전함(그림 II-5)은 부산박물관 소장으로 소나무로 제작된 상자에 자개를 잘게 부수어 붙이는 시패법(蒔貝法)이 적용된 나전 목공예품이다. 자개의 세편(細片)을 체에 걸러 아주 작은 가루를 만들어 화려하게 장식하여 나전기법의 예술적 가치를 볼 수 있다. 〈그림 II-6〉의 나전칠국화모란넝쿨무늬상자

47) 시도유형문화유산은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국가유산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국가유산으로서 무형유산,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자연유산, 기념물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螺鈿漆菊花牡丹唐草文箱子)는 국립해양박물관 소장으로 소나무와 황동을 재료로 제작한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이다.⁴⁸⁾ 상자 밑면을 제외하고 상자 전체에 꿰음질과 줄음질 기법을 사용하여 국화모란문을 장식하였으며 윗면에는 모란과 국화를 당초문으로 배치하였다. 모란, 국화, 당초를 조합한 문양을 앞면까지 이어지게 장식하였으며, 뒷면과 측면의 경우에는 국화당초문만 장식되어 있다. 내부에는 정제칠로 마무리되어 있어 귀중한 서류 등을 보관하는 상자였던 것으로 보인다.⁴⁹⁾ 모란과 국화는 줄음질 기법, 넝쿨무늬는 꿰음질 기법, 내부의 정제칠 등 작품의 표현 기법들이 뛰어나 문화재적 가치와 희소성이 높다.⁵⁰⁾

시도문화유산자료는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나전대모쌍룡문함(螺鈿玳瑁雙龍文函)이 있다. <그림 II-7>은 국립해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뚜껑의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본체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상자이다. 뚜껑의 윗면에는 대모(玳瑁)⁵¹⁾로 장식된 여의주를 서로 차지하려는 쌍룡이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대모함의 앞면, 뒷면, 측면까지 연결되어 있다. 용의 몸 형체는 동선(銅線)으로, 비늘과 배 부분은 어피(魚皮)로, 표면 여백의 구름은 타발법(打拔法)⁵²⁾으로 표현하였고, 뚜껑 아래쪽 가장자리는 거치문과 마름모를 어피로 장식한 후 옷칠로 마무리하였다. 함 내부에는 쌍룡의 원룡문(圓龍文)이 있는 비단을 감색으로 염색하여 도배되어 있다. 크기와 형태로 보아 옷이나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전대모쌍룡문함의 재료는 나전, 동선, 어피 등 여러 재료를 혼용하였고 뚜껑과 몸체의 모서리에 대모를 박아 장식하여 견고하게 하였으며, 내부에는 비단으로 배첩 도배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궁중용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다.⁵³⁾

48) 국립해양박물관, <https://blog.naver.com/museum4you/222174217631>(검색일: 2024.4.10.)

49) 국립해양박물관, <https://blog.naver.com/museum4you/222174217631>(검색일: 2024.4.10.)

50)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검색일: 2024.4.10.)

51) 대모(玳瑁)는 바다거북의 등껍질을 말한다.

52) 타발법은 자개 문양을 한 단위로 떠내는 방법이다.

53)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main/?v=1719120084849>(검색일: 2024.4.28.)



〈그림 II -5〉 나전함

출처: <https://www.heritage.go.kr/main/?v=1719120084849>(검색일: 2024.4.28.)



〈그림 II -6〉 나전칠국화모란넝쿨무늬상자

출처: <https://blog.naver.com/museum4you/222174217631>(검색일: 2024.4.26.)



〈그림 II-7〉 나전대모쌍룡문합

출처: <https://www.heritage.go.kr/main/?v=1719120084849>(검색일: 2024.4.26.)

2) 시대별 역사적 변천

나전칠기의 역사를 살펴봄에 있어 칠기의 역사와 분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나전칠기는 칠기에 장식적 행위가 더해져 함께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기존에 칠기의 시작은 B.C 3세기 청동기시대로 추정되었으나 1988년 경상남도의창군 다호리 유적의 발굴로 B.C 1세기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⁵⁴⁾

(1) 삼국시대 ~ 통일신라시대

옷칠만으로 장식되던 칠기들이 삼국시대에 들어 패각(貝殼)이나 유리 등으

54) 이광웅(2009), 조선시대 나전칠기 문양의 조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0(2), p.312.

로 장식되면서 나전칠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패각(貝殼)이 활용된 가장 오래된 유물은 신라시대 경주 황남대총에서 발굴된 흑칠안교(黑漆鞍橋)에 반추형(反雛形) 패각을 금동제 원두정(圓頭釘)으로 고정시킨 것이다. 또한 은령총(銀鈴塚)의 동은(銅銀) 장식 패기(敗器)와 천마총(天馬塚)의 금동제 패기가 옷칠 장식에서 나전칠기 장식으로 발전하는 과도기적 기법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호우총(壺杆塚)에서 발굴된 목심칠면(木心漆面)⁵⁵⁾에는 금테를 두른 유리알이 박혀 있고 채색으로 점을 찍은 후 유리 눈알을 올려놓아 고정했는데 이를 복채기법(伏彩技法)⁵⁶⁾으로 본다면 평탈기법(平脫技法)이 적용된 나전칠기 줄음질 기법의 시초로 여겨진다.⁵⁷⁾ 나아가 백제 무령왕릉(武寧王陵)에서 출토된 왕의 베개[頭枕]와 발받침[足座]에도 칠 바탕에 금판(金版)과 금박(金箔)이 장식되어 있다. 이 기법은 통일신라시대에 성행하던 평탈기법(平脫技法)의 과도기임을 암시한다.⁵⁸⁾

「삼국사기」 경덕왕(景德王, 재위 742~765) 편에는 국가가 직접 옷칠 기물의 생산을 관할하는 칠전(漆典)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단순히 칠기의 제작뿐 아니라 칠전의 관리와 옷의 채취 업무를 국가가 주관했음을 보여준다.⁵⁹⁾ 통일신라시대 유물 중 주목해야 할 점은 평탈기법이다. 평탈기법은 옷칠한 바탕 위에 얇은 금판이나 은판을 모양에 맞게 오려 붙이고 다시 옷칠을 하고 갈아내는 기법으로 칠기에 자개 문양을 문고 그 표면을 연마하여 문양이 나타나도록 하는 나전칠기 기법과 공정이 같다. 1975~1976년에 안압지에서 발굴된 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꽃장식 평탈칠기와 청동

55) 목심칠면(木心漆面)은 나무에 흑칠을 하고 그 위에 도깨비 얼굴을 표현한 것이다.

56) 복채기법은 얇은 자개 뒷면에 색을 칠해 앞면에 색이 자연스럽게 비쳐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다.

57) 이광웅(2002), 줄음질기법을 이용한 칠예작품연구, 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이형만(2004), 줄음질에 사용되는 자개의 특성 고찰, 아시아민족조형학보 4, p.41.; 정해조(2006), 나전장, 국립문화재연구소, 민속원, p.15.

58) 이종석(1998), 한국의 전통공예, 열화당, p.33.

59) 이종석(1998), 한국의 전통공예, 열화당, p.29.

금은 평탈 보상화문 경, 백동금 은장 평탈 경, 청동 은평탈 봉황문 경이 이에 속한다.⁶⁰⁾ 특히 꽃장식 평탈칠기는 출토된 지역이 분명하고 나무에 장식한 점, 표현된 무늬가 한국적인 감각이라는 점에서 한국 나전칠기문화의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⁶¹⁾

평탈기법의 유물 중에는 국보 140호로 지정된 나전화문동경(螺鈿花文銅鏡)이 있다. 이는 가야 고분에서 발굴되었는데 거울 뒷면 중앙에 자개로 장식된 화문(花紋)을 중심으로 그 아래와 위에 또 다른 중간 크기의 화문을 한 개씩 장식했고, 이외에도 작은 화문을 여기저기에 넣었다. 또한 자개로 된 꽃잎의 내부에는 붉은빛을 띠는 호박을 넣어 화려함을 더했다. 중앙의 화문 좌우로는 사자로 보이는 짐승, 새, 낮은 산봉우리를 자개로 표현했다. 옷칠된 표면 위로는 푸른색 옥이나 터키석 조각들로 빈틈을 채워 촘촘하게 박았다.⁶²⁾ 이러한 통일신라시대 나전화문동경 유물은 주로 왕족이나 귀족의 계급사회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유추되며, 당시 한반도의 나전기법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공예 기술과 미적인 감각도 뛰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⁶³⁾

(2) 고려시대 ~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는 나전칠기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다.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⁶⁴⁾에는 11세기 고려 문종(재위 1046~

60) 서민성(2023), 평탈기법을 활용한 칠기(漆器) 작품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14.

61) 이종석(1998), 한국의 전통공예, 열화당, p.45.

62)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검색일: 2024.5.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검색일: 2024.5.5.)

63)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82%98%EC%A0%84%20%ED%99%94%EB%AC%B8%20%EB%8F%99%EA%B2%BD> (검색일: 2024.5.5.)

64) 「동국문헌비고」는 조선의 정치·경제·문화 등 각종 제도와 문물을 분류, 정리한 책으로 1770년(영조46) 홍봉한 등이 왕명을 받아 처음 100권으로 편찬했다.

1083)이 요나라 왕실에 선물로 나전칠기를 보낸 기록이 있다. 1123년 인종 1년 고려에 왔던 송의 사신 서궁(1091~1153)이 지은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⁶⁵⁾에는 나전칠기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기록으로 고려의 나전칠기가 정교하고 세밀하다고 했다. 「해동역사(海東譯史)」⁶⁶⁾에는 12세기 초부터 고려의 나전칠기가 외국과의 교역 품목으로 빈번하게 기재되어 있다.⁶⁷⁾

「고려사(高麗史)」식화지(食貨志)⁶⁸⁾에 의하면 중상서(中尙書)에서 궁중용 나전칠기를 제작한 기록이 있다. 원종(재위 1260~1274) 13년(1272)에는 원나라의 황후가 다량의 대장경을 요청함에 따라 전함조성도감(鈿函造成都監)⁷⁰⁾을 설치하여 경함과 후궁들이 사용하는 각종 의례 용구들을 제작하였는데 나전칠기도 포함되었다.⁷¹⁾

고려시대의 나전칠기 유물로는 경함(經函), 염주함(念珠盒), 향갑(香匣), 유병(油瓶), 소상자(小箱子), 필갑(筆匣), 연갑(硯匣), 소함(小函) 등이 있다.⁷²⁾ 그 가운데 고려나전경함은 8점이 남아 있으나 일본, 미국, 유럽 등지의 박물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⁷³⁾ 다행히 2014년 5월 23일 박물관회가 일본에서 나전경함 1점을 들여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이처럼 고려시대에는 나전칠기문화의 전성기로 화려하고 섬세한 문양들로 왕족과 귀족의 의례용품이나 장식품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흑칠에 나전, 대모, 은선 또는 동

65) 「고려도경」은 1123년(인종 1) 송나라 사절로 고려에 왔던 서궁이 저술한 견문록이다.
 66) 「해동역사」는 조선후기 실학자 한치윤이 집필한 단군 조선으로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역사서이다[한국민족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2539>(검색일: 2024.5.5.)]
 67) 권상오(2015), 나전공예, 대원사, p.12.
 68) 「식화지」는 정사(正史) 속에 있는 각 왕조의 재정 관계를 기록한 것이다.
 69) 중상서는 고려 시대 임금의 사용하는 각종 기완(器玩)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일을 담당하던 관청이다.
 70) 전함조성도감은 고려시대 불경 보관함을 만들기 위해 설치한 임시관서이다.
 71) 마가상(2021), 칠 예술을 이용한 제품 디자인 연구 : 나전 칠기 기법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8.
 72) 최예중(2017), 전통소재의 나전칠기 기법을 활용한 가구디자인 선호도 조사 분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8.
 73)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culture/6186637>(검색일: 2024.4.28.)

선을 감입하여 무늬를 만들거나 자개를 얇게 갈아 사용한 박패법(薄貝法)을 이용한 점은 고려시대의 특징으로 전통적인 장식기법으로서의 기틀을 보여 주고 있다.⁷⁴⁾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관할 하에 나전칠기가 제작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전국의 옷나무를 헤아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 기록이 남아 있다. 조선의 나전칠기문화를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어 분류하면 초기(14세기 후~16세기 중반)에는 고려시대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귀족적이고 불교적 성향에서 점점 벗어나 문인화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⁷⁵⁾ 조선중기(16세기~18세기)는 문화 부흥기로 나전칠기 제품에도 영향이 있었다. 왕실의례용품이나 진상품 등으로 제작이 되었으며 사용계층도 고위 양반으로 제한되었다. 영조(英祖) 대에는 사치를 억제하고 소박함을 강조하면서 왕실에서 주문이 많았던 빗함을 나전으로 장식하지 말라는 법령⁷⁶⁾을 내리기도 했다. 이 무렵 장인들은 민간공방에서 나전칠기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다.⁷⁷⁾ 조선말기(18세기 중반~19세기 후반)에는 신분제가 약화되고 재산을 축적한 중인이 주요 소비층으로 등장하였고⁷⁸⁾ 자연관과 행복을 반영하는 민화풍의 서민적 문양으로 나전칠기가 대중화되었다.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나전칠기 유물은 대부분 함 종류이다. 조선초기의 문양은 연화문·국화문·모란문, 중기부터는 자연문·문자문·동물문·길상문, 후기에는 십장생·산수문 등이 사용되었다. 또한 타찰법이나 할패법과 같은 장식 기법들이 새롭게 사용되었으며 끊임질 문양이 성행하였다.⁷⁹⁾

74) 권상오(2015), 나전공예, 대원사, p.13.

75) 이광웅(2009), 조선시대 나전칠기 문양의 조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0(2), p.317.

76) 팽장삼(2003), 한국과 중국 나전칠기의 비교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3.

77)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aver?blogid=dlrrb0108>(검색일: 2024.5.5.)

78) 최선태, 이희승(2019), 나전 옷칠공예 활성화 방안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22(4), p.317.

79) 이광웅(2009), 조선시대 나전칠기 문양의 조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0(2),

(3) 근대 ~ 현대

근대는 일제 침략의 영향으로 우리 문화가 단절되거나 왜곡, 훼손되는 시기였으나 나전칠기는 오히려 이전에 비하여 성행했다. 이는 1914년 이왕직 미술제작소를 조선미술품제작소로 독립시켜 일본인들의 취향에 맞는 생활용품으로 나전칠기가 대량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⁸⁰⁾

1920년대 일본인들의 조선 관광이 본격화되자 나전칠기가 일본인 여행객들의 관광 기념품으로 인기를 끌었다.⁸¹⁾ 같은 해 10월 전성규(1880~1940) 외 6명이 일본 다카오가로 초빙되어 기무라 텐코가 설립한 조선나전사에서 나전칠기 제작을 연구했다. 이 조선나전사의 광고 문구에는 “소지의 구조가 견고하고 탁월함, 나전의 색과 광택이 매우 선명하고 화려함, 의장 도안은 조선식으로 우아함, 순정의 생칠을 사용하여 변색과 벗겨짐이 없음, 칠이 두텁고 아름다워 고상하고 우아함” 이라고 나전칠기에 대해 언급했다. 이렇게 기무라 텐코는 조선의 나전칠기를 동양 미술의 정수로 평가하며 나전칠기 사업을 확장시켰다.⁸²⁾

그 후 전성규와 김봉룡(1902~1994)은 우리의 전통 기술을 일본에 넘겨 줄 수 없다며 2년 만에 귀국하였다. 1922년 개설된 조선미술전람회에서도 이들은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 1925년 파리만국박람회에서는 전성규의 '나전연초합[煙草盒]'과 '나전수상[手箱]' 이 동상을 받았고, 김봉룡은 '나전화병'으로 은상을 받아 화제가 되었다.⁸³⁾

1940년대 이후로는 일본의 전시체제로 옷칠이 군수용품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옷칠재료가 부족해졌다. 해방이 되자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한 수출

p.316.

80) 정혜조(2006), 나전장, 국립문화재연구소, 민속원, p.23.

81) 정서희(2021), 일제강점기 공예품 연구 : 관광기념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82) 노유니아(2016), 조선나전사와 한국 근대 나전칠기, 문화재 49(2), p.25.

83) 한단아(2020), 일제강점기 나전칠기 정책과 제작 연구, 무형유산 9, p.193.

품 중 하나로 나전칠기공예를 육성하고자 나전칠기공예의 교육지원 및 수출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따라서 1970년대 이전까지 나전칠기는 한국의 중요 수출품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나전칠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산량이 절정에 달하여 생산과정의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전통적인 기법의 수공예품에 비해 저가의 양산품이 대량생산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소비자들의 취향이 달라지면서 나전칠기의 수요가 급감하게 되었다.⁸⁴⁾

최근에는 K-Culture의 일환으로 국내외에서 K-Craft인 나전칠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9년 2월 1일에 매경 데스크 칼럼에는 ‘나전칠기의 눈물’이라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게재되었다.

우리는 지금 문화의 세기에 살고 있다. 문화의 상품화가 국가 정책의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고 국익은 물론 국가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부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례로 방탄소년단 덕분에 더욱 거세진 K팝 열풍은 외국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 전통 공예품인 나전칠기를 'K공예 한류'의 선봉장으로 육성할 만하다.⁸⁵⁾

2019년 3월 2일 EBS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에서 외면받는 나전칠기가 살아남는 이유’⁸⁶⁾ 라는 제목으로 오히려 해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으로 나전칠기를 조명하고 현대식 기계를 이용하여 자개를 절삭하는 제작 방법을 소개하였다. 2019년 10월 27일 ‘빌게이츠·힐러리도 반한 나전칠기’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는 K뷰티, K팝의 열풍 속에서 K공예의 가능성을 열고 있

84) 네이버블로그, <https://m.blog.naver.com/dlrrb0108/222062575949#>(검색일: 2024.5.10.)

85)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columnists/8675500>(검색일: 2024.5.12.)

86) EBS다큐, EBSDocumentary, <https://www.youtube.com/watch?v=jjrsV3M91G4&t=81s>(검색일: 2024.5.12.)

는 나전칠기⁸⁷⁾를 조명하였다.

2022년 10월 22일 프랑스 내 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 전통 나전이 전시⁸⁸⁾되어 프랑스 관람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2024년 3월 11일 SK지오센트릭 광고는 ‘사물의 쓸모를 다시 찾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한국의 힘’을 주제로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조개껍데기를 활용해 나전칠기를 만든 것을 모티브로 하여 올해의 광고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⁸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나전칠기문화는 삼국시대로부터 기원이 추정되며 국가의 관할 하에 발전하였다. 이후 근대의 혼란과 쇠퇴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들어 다시금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현 사회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역사적인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다.

3. 나전칠기 제작의 기법과 과정

1) 나전칠기의 문양 제작과 기법

(1) 문양 제작

나전칠기는 자개를 길게 썰거나 잘라서 붙이는 장식 기법으로 원하는 도안을 그리고 그 도안대로 문양을 제작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자개로 문양을 만드는 방법에는 주름질, 꿇음질, 타찰법, 타발법, 할패법, 시패법, 조패법 등이 있다. 이러한 기법은 전통문양뿐 아니라 현대적인 디자인에도 활용도가 높아 나전칠기문화의 발전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양 제작기법으로 줄음질(절발법, 도림질, 따냄질)은 <그림 II-8>에서와 같

87) 연합뉴스, <https://www.youtube.com/@yonhap>(검색일: 2024.5.12.).

88) YTN코리아, <https://www.youtube.com/@YTNKOREAN>(검색일: 2024.5.12.).

89) MADTIME, <https://www.madtimes.org/news/articleView.html?idxno=19946>(검색일: 2024.5.12.).

이 자개에 그려 넣은 문양의 도안을 ‘줄금을 따라 잘라낸다’는 의미⁹⁰⁾로 해석된다. 이는 실톱, 가위, 칼 등으로 계획된 도안에 따라 자개를 오리거나 자르고 줄칼로 다듬어 문양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⁹¹⁾ 실톱을 이용하여 섬세한 곡선까지 오려낼 수 있으며 한 장의 문양뿐 아니라 여러 장의 자개를 포개어 한 번에 같은 문양을 여러 장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의할 점은 자개를 오려낸 후 장식하고자 하는 표면에 붙이는 과정에서 자개의 이어지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섬세하게 짜맞추어야 한다.

〈그림 II-9〉의 꿇음질(절패법)은 상사기나 상사거도를 이용하여 가늘고 긴 모양으로 자개를 자른 뒤에 그 자개 상사를 꿇어 붙여가면서 문양을 구성하는 것이다. 직선 구성의 연속 바탕 무늬나 곡선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⁹²⁾ 이는 산수문양이나 기하학적 표현에 이용되어 조선 후기에 성행하였다. 〈그림 II-10〉의 타찰법은 자개에 일부러 압력을 가하여 균열을 만들어 내는 기법이다. 이러한 타찰법은 조선시대의 나전칠기 문양이 고려시대에 비해 크기가 커진 원인으로 조선 전기에 고안되어 조선 중기에 성행한 기법이다.⁹³⁾

〈그림 II-11〉의 타발법은 끝을 이용하여 자개 문양의 윤곽을 동일한 모양으로 따내는 것으로 안쪽의 광택이 나는 진주층 조개류의 부분을 편평한 모양으로 오려내 기물 위에 박아 넣거나 붙여서 장식하는 기법이다.⁹⁴⁾ 〈그림 II-12〉의 할패법(할나전)은 자개를 처음부터 부수고 그 조각난 자개를 칠면에 이어 붙이는 모자이크 장식 기법이다.⁹⁵⁾

90) 이형만(2003), 줄음질에 사용되는 자개의 특성 고찰, 아시아민족조형학보 4, pp.42-43, p49.

91) 정해조 (2006), 나전장, 국립문화재연구소, 민속원, p.27.

92) 정해조 (2006), 나전장, 국립문화재연구소, 민속원, p.74.

93) 장여미(2018), 조선전기 나전칠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1-93.; 권수영 (2019), 타찰(打擦)기법을 이용한 나전칠기 소품 제작 연구, 한국전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94) 양혜합(2023), 한중일 나전(螺鈿) 문양에 대한 비교 및 디자인 재해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최영숙(2021), 나전장 :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14,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p95.

95) 이광웅(2009), 조선시대 나전칠기 문양의 조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0(2),

〈그림 II-13〉의 시패법은 자개를 잘게 썰거나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칠면 위에 뿌리는 기법이다. 〈그림 II-14〉의 조패법은 진주 자개를 1~1.2mm 두께로 가공한 후패에 문양을 그려 오린 후에 뒷면에 아교 칠을 하여 나무판 위에 붙여 놓고 조각을 하여 기물에 돌출되게 부착시키는 기법이다.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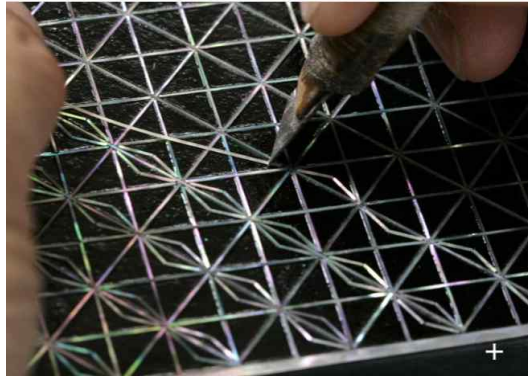


〈그림 II-8〉 줄음질

출처: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10183>(검색일: 202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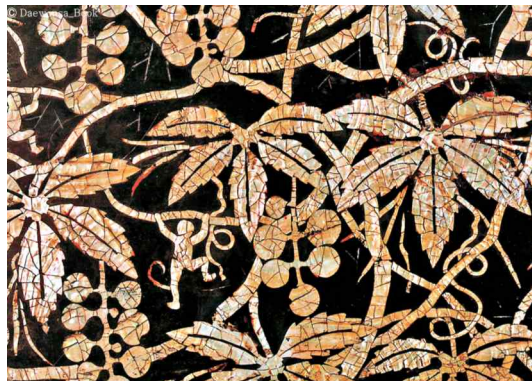
p.316.

96) 김성수(2013), 옷칠, 나뉨. p.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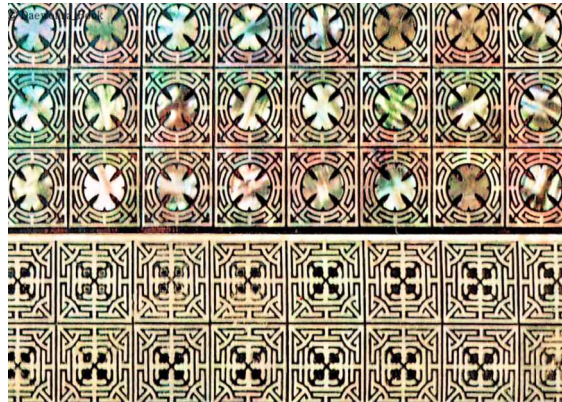
〈그림 II-9〉 끊음질

출처: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10183>(검색일: 202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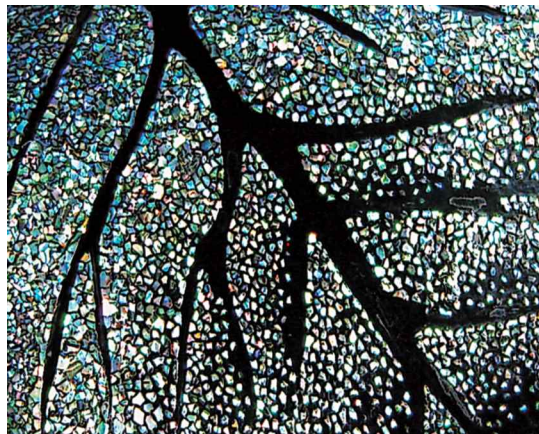
〈그림 II-10〉 타찰법

출처: <https://m.post.naver.com>(검색일: 2024.4.9.)



〈그림 II -11〉 타발법

출처: <https://m.post.naver.com>(검색일: 202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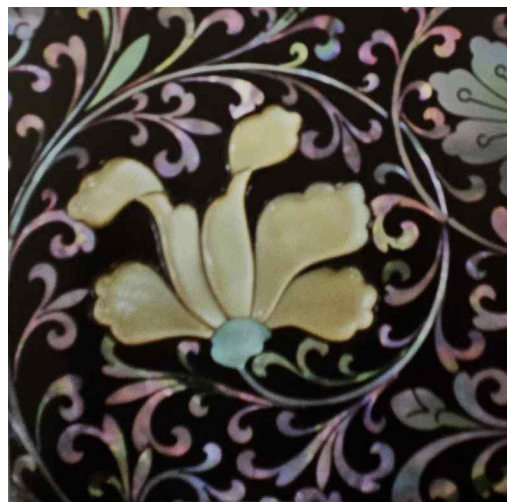


〈그림 II -12〉 할패법

출처: <https://m.post.naver.com>(검색일: 2024.4.9.)



〈그림 II-13〉 시패법
 출처: 김성수(2013), 옷칠, 나뉘, p.79.



〈그림 II-14〉 조패법
 출처: 김성수(2013), 옷칠, 나뉘, p.80.

(2) 장식 기법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나전칠기 문양의 제작이 끝나면 기물에 자개 문양을 장식한다. 문양을 장식하는 방법으로는 부착법과 감입법이 있다.

부착법(매입법)은 기물의 평면 위에 자개를 붙이고 자개 두께만큼 칠을 올려 건조시킨 후 자개 표면의 칠을 긁어내어 자개 문양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다.

감입법은 상감법이라고도 하며 압입식과 굴입식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압입법은 기물의 바탕 위에 칠을 두껍게 바르고 건조되기 전에 자개 문양을 칠 표면 위에 눌러 고착시키는 기법이다. 반면 굴입법은 원하는 모양으로 자개 문양의 면적을 조각도로 파낸 후 접착제를 넣고 자개를 끼워 넣는 방법이다.⁹⁷⁾

이상과 같은 문양의 제작과 장식 기법은 나전칠기의 예술성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독창성과 정체성을 발휘할 수 있다.

2) 나전칠기 제작의 과정

나전칠기 제작은 시간의 예술이라 할 만큼 공정과정에 오랜 시간과 전문적인 기능이 필요하다. 옷칠 과정만 하더라도 상당히 까다로운데 거기에 문양을 디자인하고 그 문양을 제작하여 장식하는 과정이 더해진다.

나전칠기 제작 과정의 순서는 우선 칠기의 바탕이 되는 나무기물(백골)의 걸면을 잘 다듬고 곡수(穀樹)로 틈이나 흠을 메우고 생칠을 테레핀⁹⁸⁾으로 희석하여 칠한 후 칠장에 건조시킨다. 건조된 기물을 사포로 갈아준 후 생칠과

97) 권상오(1996), 칠공예, 천연칠의 매력과 표현기법, 조형사, p.173.

98) 테레핀(turpentine)은 옷칠을 희석할 때 사용되는 송정유(松精油)로 송진을 수증기로 증류하여 얻는 휘발성 기름이다.

토분을 섞어 나뭇결의 차이를 고르게 메워준 후 칠장에서 다시 건조시킨다.

건조된 기물을 사포로 갈아준 후 생칠과 찹쌀풀을 섞은 호칠로 삼베나 무명을 발라 칠장에 건조시키고 다시 사포질을 한 후 생칠과 토분을 섞은 토회칠로 고르게 발라 그늘에 건조시킨 후 수평이 맞도록 면을 고르게 갈아준다. 이러한 과정을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반복하고 건조시킨 후 물사포로 면을 고르게 갈아준다.

제작된 자개 문양에 아교 칠을 하여 기물에 붙여주고 자개 문양 위에 투명지를 인두로 눌러 문양을 고정시킨다. 자개 위에 붙은 투명지를 떼어낸 후 뜨거운 물을 솥에 묻혀 빠른 시간에 아교를 제거한다. 또한 작업 과정 중 떨어진 자개를 수정한다. 묽은 생칠을 자개 사이에 잘 스며들게 고루 바른 후 칠장에서 건조시킨다.

자개 두께만큼 1차 토회칠을 하여 건조 후 가볍게 사포질을 한다. 다시 2차 토회칠을 하고 그늘에서 건조 후 토회칠한 면을 자개 문양이 나오도록 물사포로 갈아 맞춘다.

완성하고자 하는 옷칠로 초칠, 중칠, 상칠 순으로 칠을 하고 칠장에서 건조시킨 후 물사포를 한다. 칠 굽기 칼로 자개 위에 덮인 칠을 긁어낸다. 부드러운 사포로 물을 적셔주며 자개의 높낮이를 맞추면서 갈아준다. 미세한 토분이나 숯가루에 콩기름을 혼합하여 솥에 묻혀 칠면에 초벌 광을 낸다. 초벌 광내기보다 광입자가 고운 광약으로 곱게 재벌 광내기를 낸다.

이상으로 나전칠기의 제작 과정을 크게 나누면 자개를 장식할 바탕을 만드는 기초옷칠작업, 문양을 제작해 붙이는 나전작업, 다시 칠을 하고 광내기를 하는 옷칠 마무리 작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나전칠기 제작의 과정은 만들고자 하는 기물과 장식하고자 하는 자개 문양에 따라 다른 기법들이 포함되거나 생략될 수 있으며 제작자에 따라서도 공정과정이 다소 다를 수도 있다.



<그림 II-15> 백골 다듬기



<그림 II-16> 백골 위 생칠하기



<그림 II-17> 생칠 위 토회칠하기



<그림 II-18> 삼베 바르기



<그림 II-19> 삼베 위 생칠하기



<그림 II-20> 토회로 삼베 눈 메우기



<그림 II-21> 토회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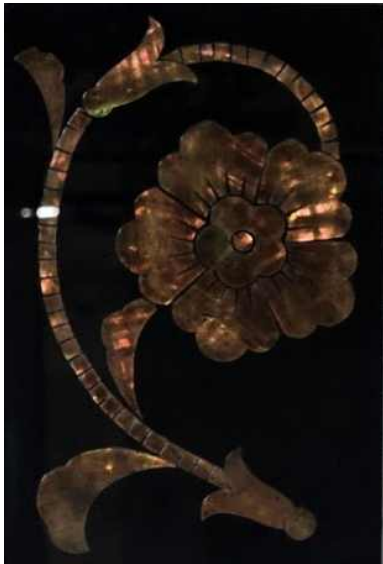
<그림 II-22> 토회 물 갈기



<그림 II- 23> 물 갈기 후 흑칠하기



<그림 II-24> 나전 문양 붙이기



<그림 II-25> 나전 위 생칠하기



<그림 II-26> 생칠 위 토회칠하기



〈그림 II-27〉 나전 문양 숫돌 갈기 〈그림 II-28〉 나전 위 생칠하기



〈그림 II-29〉 생칠 위 토회칠하기

〈그림 II-30〉 초칠 갈기



〈그림 II-31〉 중칠 후 토회칠하기



〈그림 II-32〉 중칠 갈기



〈그림 II-33〉 상칠 및 자개 긁기



〈그림 II-34〉 광내기

4. 나전칠기에 대한 선행연구

나전칠기에 대한 선행연구는 2000년대 이후 출간된 논문을 중심으로 나전장 연구,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나전칠기 연구, 나전칠기 제작과 기법 연구, 나전칠기를 활용한 디자인 연구로 대별해 살펴보았다.

1) 나전장 연구

오현석과 문용린⁹⁹⁾은 사회경제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소멸될 것으로 추정되거나 명맥 유지가 용이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직종들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 나전장은 사회적 기능과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직종으로 선별하여 논의하였다.

임승택¹⁰⁰⁾은 실존 유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전장의 작품과 생애 그리고 칠화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여 근현대 칠화 전통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한단아¹⁰¹⁾는 일제강점기에 나전장의 위치를 파악하고 전통 기술을 고수했던 나전칠기 장인들에 대해 조명하였다.

2)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나전칠기 연구

이광웅¹⁰²⁾은 조선시대 장인들의 예술정신과 나전칠기문화를 제조명하여 옷칠공예의 우수성 인식 확장에 기여하였다. 신희경¹⁰³⁾은 조선 후기 나전 배

99) 오현석·문용린(2006), 전통적 인적자원의 소멸과정에 대한 연구, 교육사학연구 16, pp.65-86.

100) 임승택(2016), 나전장 김봉룡 칠화 작품의 조형 분석, 한국가구학회지 27(3), pp.185-196.

101) 한단아(2020), 일제강점기 나전칠기 정책과 제작 연구, 무형유산 9, pp.187-221.

102) 이광웅(2009), 조선시대 나전칠기 문양의 조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0(2), pp.311-318.

103) 신희경(2013), 조선 후기 나전 유물에 관한 연구: 나전배갯모(민속 1172)의 분석을 중심으

갯모의 분석을 바탕으로 현대공예에 활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미의식의 가능성을 재고하고 현대공예에 활용할 수 있는 나전칠기 제작의 이론적 자료를 제시하였다.

노유니아¹⁰⁴⁾는 조선 후기와 해방 이후의 나전칠기 연구를 이어주는 기반이 되고자 일제강점기의 나전칠기를 고찰하였다. 장여미¹⁰⁵⁾는 조선 전기 나전공예의 양식적 특징을 규명하여 나전칠기의 역할과 의의를 연구하였다. 정서희¹⁰⁶⁾는 일제강점기 공예품을 상품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제작처와 판매처에 집중하여 근대 공예를 연구하였다.

3) 나전칠기 제작과 기법 연구

이광웅¹⁰⁷⁾은 나전기법의 하나인 줄음질 제작 기술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후 실제 작품에 적용하여 제작 작업을 하였다. 또한 이광웅¹⁰⁸⁾은 현재까지 전래되고 있는 줄음질 기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작업 공정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자 공정명이나 전문용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이선주¹⁰⁹⁾는 근대의 순정효황후 주칠 나전가구의 제작기법과 장식기법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칠기 제작 과정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팽장심¹¹⁰⁾은 한국과 중국 나전칠기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나타나는 주요 특징과 예술적 측면

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4), pp.403-414.

104) 노유니아(2016), 조선 나전사와 한국 근대 나전칠기, 문화재 49(2), pp.122-141.

105) 장여미(2018), 조선전기 나전칠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23.

106) 정서희(2021), 일제강점기 공예품 연구: 관광기념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29.

107) 이광웅(2002), 줄음질 기법을 이용한 칠예작품연구, 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84.

108) 이광웅(2009), 나전 줄음질기법의 제작공정과 용어의 정립, 조형디자인연구 12(1), pp.111-128.

109) 이선주(2019), 순정효황후 주칠나전가구의 제작기법적 고찰, 미술사연구 36(3), pp.33-50.

110) 팽장심(2023), 한국과 중국 나전칠기의 비교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197.

을 분석하였다.

4) 나전칠기를 활용한 디자인 연구

구현정¹¹¹⁾은 한국 여성의 개성에 맞는 아름다움에 나전칠기의 기능성과 조형성을 조화시킨 웨딩드레스 디자인 개발을 제시하였다. 김영준¹¹²⁾은 전통적인 나전칠기 기법을 응용하여 세계인에게 한국공예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현대적 디자인에 접목하여 디자인 소품들을 제시하였다. 최예중¹¹³⁾은 나전칠기 기법을 응용하여 가구디자인에 접목시키고자 하였다.

권수연¹¹⁴⁾은 나전칠기의 장식기법의 하나인 타찰법을 활용하여 현대적 정서에 어울리는 소품을 제작하였다. 마가상¹¹⁵⁾은 나전칠기의 예술적 가치를 인식하고 현대적 디자인에 활용해 보존 및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양혜함¹¹⁶⁾은 전통적인 나전칠기공예를 계승하면서 현대적 미적 요구에 맞는 작품을 개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나전장과 나전칠기의 역사, 나전칠기의 제작과 기법 및 활용 디자인 개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현시점에서 나전칠기문화의 전승과 변화를 다룬 연구는 시작 단계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나전장과 이수자 그리고 교육생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시

111) 구현정(2008), 나전칠기의 미적특성을 응용한 웨딩드레스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38.

112) 김영준(2015), 나전칠기 기법을 응용한 소품 디자인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49.

113) 최예중(2017), 전통소재의 나전칠기기법을 활용한 가구디자인 선호도 조사 분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17.

114) 권수연(2019), 타찰(打擦)기법을 이용한 나전칠기 소품 제작 연구, 한국전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3.

115) 마가상(2021), 칠 예술을 이용한 제품 디자인 연구: 나전칠기 기법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288.

116) 양혜함(2023), 한중일 나전(螺鈿) 문양에 대한 비교 및 디자인 재해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11.

행하여 나전칠기의 문화적 전승의 가치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탐색하였다.

Ⅲ. 한국 나전칠기문화의 전승과 변화

본 연구는 2024년의 시점에서 국가무형유산 제10호 이형만 나전장과 이수자 및 교육생들과의 면접조사를 시행하여 한국 나전칠기문화의 전승과 변화에 대한 응답 내용을 자료로 수집한 후 나전장의 생애와 전승, 나전칠기의 재료와 도구, 나전칠기의 줄임질 기법 그리고 나전칠기문화의 변화와 발전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1. 나전장의 생애와 전승

1966년 6월 29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칠기장으로 김봉룡(1902~1994)이 등록되었다. 이후 1995년 3월 16일 제10호 나전칠기장과 제54호 줄임질이 통합되어 제10호 나전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6년 12월 10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줄임질 보유자)으로 이형만이 등록되었다. 2024년 5월 17일부터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무형유산 제10호 나전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 나전장의 생애

이형만 나전장은 1946년 12월 7일 경상남도 통영군 산양면 연화리에서 아버지 이상진과 어머니 이장악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나전칠기를 배우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에서 시작되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위해 시험원서를 내고 친구들과 놀던 중 오른쪽 팔에 골절을 당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였다. 낙심하고 있던 중 주위 어른들의 권유로 1960년 3월 경상남도

기술양성소라는 교육 기관에 입학하게 되었다. 기술양성소 입학으로 자연스럽게 나전칠기를 접하게 된 이형만은 이곳에서 소장으로 재직하던 김봉룡 선생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기술양성소는 중학교 과정의 수료가 인정되던 교육기관으로 오전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디자인, 데생, 정밀묘사 등 나전칠기에 필요한 기초과정을 연마하였다. 이렇게 1학년을 보내고 2학년 때는 오전에 교양과목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실기 수업으로 조립식 촛대나 자신의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 3학년에서는 전공수업으로 자신이 직접 디자인을 해서 백골도 짜고 베도 바르는 현재의 공정과 같은 방법으로 작품을 완성하였다. 이곳에서는 3학년 과정을 졸업하면 연구부에 소속되어 전문가 선배로부터 배우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형만이 졸업할 무렵 퇴임을 하게 된 김봉룡 선생이 평소 우등생 자리를 놓치지 않던 그를 자신의 개인 공방의 문하생으로 발탁하였다. 이렇게 김봉룡 선생과의 인연이 더 깊어져 문하생으로 생활하면서 주간에는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야간에는 고등학교를 다녀 1965년에 충무야간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이듬해인 1966년 6월 29일 김봉룡 선생이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칠기 장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형만은 자연스럽게 전수생으로 등록되었다. 또한 그는 1966년 9월 16일 제5회 한산대첩기념제전 공예전시회에서 최고상인 경상남도지사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이형만의 중요한 인연으로 손꼽히는 스승 중에는 임성춘과 무위당 장일순(1928~1994)을 빼놓을 수 없다. 김봉룡 선생의 공방에서 옷칠 부분의 책임을 담당했던 임성춘 선생으로부터 이형만은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전수 받았다. 군 체대 후에는 원주로 이사한 김봉룡 선생을 따라 그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장일순 선생을 만나 큰 영향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정신적인 지주로 삼고 있다.

그 후 이형만에게 힘든 시기도 있어 경제적인 사정으로 1975년 부산으로 내려가 개인 공방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1978년 다시 원주로 돌아와 작업에 몰두한 이형만은 1987년 11월 30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칠기장 김봉룡 이수자로 등록되었다. 1991년에는 조교, 1993년 보유자 후보로 선발되었으며 1996년 12월 10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보유자로 지정을 받았다. 2006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칠예 교육이 시작되어 이형만은 예술대학의 칠예과 초대 교수로 취임하여 후학 양성에 힘쓰게 되었다. 현재는 국가무형유산 제10호 나전장으로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와 전통공예연구소에서 전수 교육과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형만 나전장은 평생을 업으로 삼고 있는 나전칠기에 관하여 자신의 철학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철학이랄 게 뭐 있나요.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단지 그 기능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디자인이라든지 기술면에 있어서 공부하고 개발하고, 변화하는 물결에도 적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품 의뢰가 왔을 때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주문자보다 디자인이나 기술에 있어 잘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부해라, 공부해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작가라면 누구든지 어느 분야이든 간에 사람이 정직해야 만이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공정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찮고 힘들다고 건너뛰고 그러면 꼭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정직해야죠.

위의 응답 내용으로 보아 이형만은 끊임없는 연구 개발, 변화하는 물결에 대한 적응 그리고 작품에 대한 정직한 노력의 중요성을 나전칠기 작품을 만드는 철학으로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나전장의 전승

현재 이형만 나전장을 이어 나전칠기를 전승하고 있는 이수자와 교육생들은 모두 9명이 등록되어 있다. 7명은 나전칠기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명은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계속 수련을 하는 상황이다.

나전장은 문화재청의 전통분과 중에서 활성화된 전통문화분야로 분류되고 있다. 이처럼 활성화된 분과로 분류되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나전칠기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통적인 나전칠기 기법을 전승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전장은 이수자와 교육생들 그리고 이수자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내가 혜택을 주는 게 없으니 뭘 기대하겠습니까. 다만 이수자들이 나한테 인정을 받기보다는 타 공모전에 꾸준히 도전도 하고 전시회에 출품도 해서 일반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나전장의 답변은 이수자가 되어도 자신을 알리지 않으면 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아직 나전칠기의 가치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태반이고, 안다고 해도 고가일 수밖에 없는 나전칠기에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이수자들이 보다 왕성하게 공모전이나 전시회에 출품 활동을 독려하는 나전장의 속뜻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나전장의 전승을 통해 한국의 나전칠기문화를 더욱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수자와 교육생 그리고 향후 이수자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승교육사의 지정과 배치, 나전칠기 교육 후에 연결될 수 있는 진로 개발 등의 정책적인 제도와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나전칠기의 재료와 도구

나전칠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다양한 재료와 도구가 활용된다. 이형만 나전장과의 면접을 통해 나전칠기 작업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에 대해 조사하였다.

1) 나전칠기의 재료

옷칠을 할 때 필요한 재료로는 백골, 생칠, 흑칠, 삼베, 찹쌀가루, 토분, 테레핀, 숯가루, 사포, 칠지, 기름종이, 칠그릇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백골은 아직 옷칠을 하지 않은 목기를 말하는 데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 디자인을 해서 제작을 맡긴다. 재료로서 백골을 고르는 안목은 매우 중요하다. 나전장은 직접 도안을 그려 백골 제작을 맡기고 있었다. 또한 백골의 이상 유무를 꼼꼼하게 확인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작업을 하였다.

백골 위에는 생칠을 하는데 생칠은 옷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을 여과해 정제를 시킨 칠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옷칠이다. 어느 정도 정리된 기물의 표면을 다듬은 후에는 흑칠을 하는데 이 흑칠은 생칠을 정제하여 만든 것으로 자개 문양을 붙이기 전에 칠해주는 것이다. 베는 백골을 감싸주는 것으로 기물에 따라 종류가 다를 수 있다. 생칠과 배합해 베를 바를 때는 찹쌀가루가 필요하다.

토분은 토회칠 작업을 할 때 쓰이는 것으로 황토를 물에 띄워 앙금을 걸러낸 뒤 물에 부유된 가루만을 건조시킨 것이다. 테레핀은 옷칠을 희석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송정유라고도 한다. 숯가루는 탄호칠에 사용하는 탄분이고 사포는 칠면을 고르게 갈아 맞추는 데 사용된다. 이외에도 옷칠의 먼지나 불순물을 걸러주는 여과지, 옷칠을 바른 후 남은 옷칠을 보관할 때 공기 접촉을 막기 위해 덮어 두는 기름종이, 옷칠을 담아두는 칠그릇 등이 준비된다.

다음으로 나전(자개)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자개이다. 자개는 문양을 만들어 붙이는 가공된 조개로 그 종류가 80여 종으로 세분화 된다.¹¹⁷⁾ 자개의 선별은 오랫동안 작업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나전장만의 노하우로 그의 작품에서는 문양의 디자인에 따른 조화로움이 탁월함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림 III-1>에 제시한 나전장의 나전연상(좌)과 봉황 문양(우)은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화이불치(華而不侈)의 미학¹¹⁸⁾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나전칠기의 도구

나전칠기의 기본 도구는 주걱, 가위, 칼이며, 자개를 오리고 붙일 때 쓰이는 도구로는 실톱, 톱날, 줄, 태장대, 풀, 트레싱지, 연필, 제도용 펜, 핀셋, 줄, 아교, 아교칠 붓, 인두, 풀빼기 솔, 칠 긁기 칼이 있다. 이들 기본 도구 중 특히 주걱, 칼, 붓 등은 나전장이 용도에 따라 직접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줄음질을 할 때 사용되는 도구는 태장대, 실톱대, 톱날, 연필, 제도용 펜, 트레싱지, 핀셋, 아교칠 붓, 인두, 풀빼기 솔, 칠 긁기 칼 등이다. 마지막으로 광내기 작업을 할 때는 슝, 연마재, 콩기름이 필요하다.

이들 나전칠기의 도구 가운데 태장대는 자개를 고정시키기 위해 올려놓고 오리기 편하게 도와주는 받침대이다. 실톱대는 실톱 날을 끼워 자개를 자를 때 사용하는 도구로 디근자 모양으로 줄음질의 주요한 도구이다. 연필은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용하며 제도용 펜은 트레싱지 위에 밑그림을 베낄 때 사용한다. 트레싱지는 밑그림을 베낄 때 잘 보일 수 있는 투명지이고 핀셋은 실톱으로 줄음질한 자개를 투명지 위에 붙일 때 자개를 잡기 위한 도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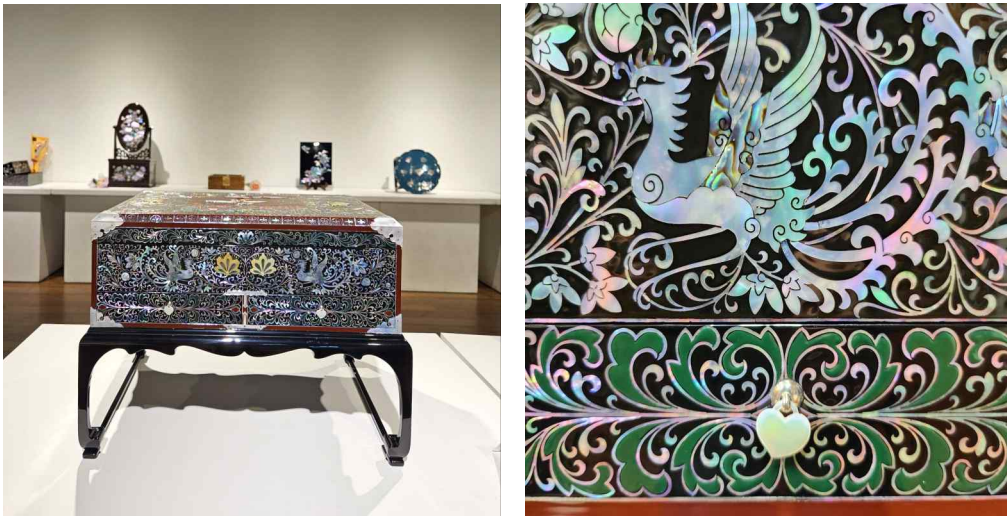
아교칠 붓은 자개 문양을 접착시킬 때 아교를 바르는 붓이며, 인두는 자개

117) 이형만(2003), 줄음질에 사용되는 자개의 특성 고찰, 아시아조형학보 4(1), p.45.

118)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https://blog.naver.com/kcdf2010/223273822967>(검색일: 2024.5.21.)

를 붙인 후 더욱 잘 붙도록 지짐질을 할 때 사용한다. 풀빼기 붓은 아교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밖에 자개 위의 칠을 벗기기 위해 여러 종류의 조각칼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나전장과의 면접을 통해 볼 때 현재 사용되고 있는 나전칠기의 재료는 과거의 것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백골과 자개를 고르는 안목이 매우 중요했으며, 재료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작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기본이 되었다. 또한 나전장의 제작 도구는 다른 작업자들의 것과 거의 유사했지만 만드는 작품에서 필요한 용도에 따라 붓의 길이를 조정하기 위해 직접 제작해 사용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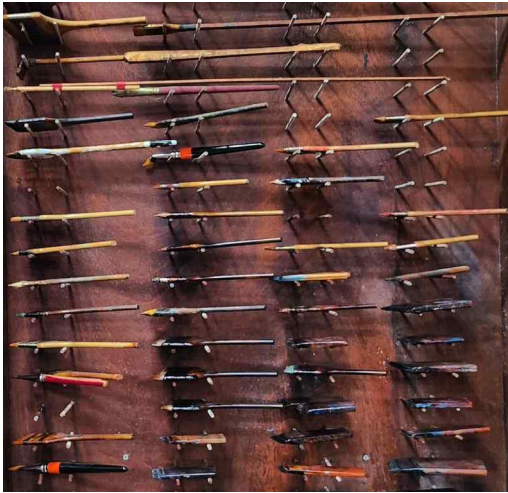
<그림 III-1> 나전연상(좌)과 봉황 문양(우)



<그림 III-2> 생칠



<그림 III-3> 자개



<그림 III-4> 칠 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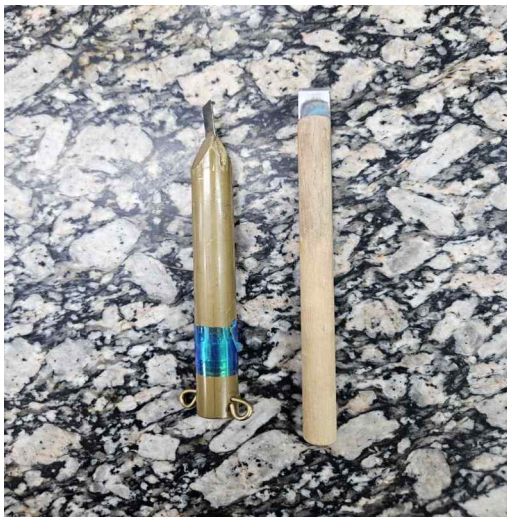
<그림 III-5> 베



<그림 III-6> 찰쌀풀



<그림 III-7> 주걱



<그림 III-8> 조각칼



<그림 III-9> 핀셋



<그림 Ⅲ-10> 아교



<그림 Ⅲ-11> 클램프



<그림 Ⅲ-12> 거치대



<그림 Ⅲ-13> 끌

3. 나전칠기의 줄음질 기법

본 연구에서는 나전칠기의 제작 중 하나로 이형만 나전장의 줄음질 기법에 대해 면접조사를 시행하여 나전칠기의 바탕 만들기 과정, 줄음질 제작 과정, 자개 장식과 옷칠 마무리 과정으로 나누어 내용을 분석하였다.

1) 바탕 만들기 과정

바탕 만들기 과정에는 백골 제작, 곡수, 생칠 메기기, 나무 눈매 메우기, 베 바르기, 탄호칠 바르기, 초벌 토회칠 바르기, 재벌 토회칠 바르기, 토회칠면 고르기, 기름칠(초칠)하기의 과정이 포함된다.

백골은 나전장이 직접 설계한 후 소목장에게 제작을 의뢰한다. 백골을 의뢰할 때는 크기, 치수, 형태 등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며, 백골이 완성된 후에는 꼼꼼하게 확인을 한다. 만일 흠집이 있거나 주문대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을 한다. 백골이 잘 만들어졌으면 웅이나 틈새 등을 사포로 곱게 손질한다. 다음으로 생칠에 톱밥과 참쌀풀을 배합해 만든 곡수로 백골의 흠이나 틈을 메워준 후 건조시킨다. 건조된 백골을 사포로 갈아준 후 생칠에 테레핀을 섞어 백골에 바른다. 이 과정은 수분 흡수를 방지하고 다음 칠의 접착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생칠한 백골은 칠장에 넣어 건조시킨다. 칠장의 온도는 20~25C, 습도는 70~80%로 유지하면서 먼지나 티끌이 묻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잘 말랐으면 백골의 숨구멍이나 나뭇결의 차이를 생칠과 토분을 섞은 토회칠로 메워준다. 이를 눈매 메우기라고 부른다.

다음으로는 베를 재단하여 참쌀풀과 생칠을 섞어 만든 호칠(糊漆)로 백골에 바른다. 그 위에 베를 편편하게 펴 붙이고 다시 호칠을 발라 고정시켜 건조시

킨다. 이렇게 베를 바른 면 위를 호칠에 숯가루를 배합해 다시 고르게 바르는 탄호칠을 한다. 탄호칠을 한 후에 가볍게 사포를 하고 초벌 토회칠을 한다. 토회칠은 생칠과 토분을 섞어 만든 것이다.

초벌 토회칠이 마르면 가볍게 거친 부분만 갈아 맞추고 같은 방법으로 재벌 토회칠을 한다. 다시 건조 후 숫돌로 물을 주면서 갈아 면을 수평으로 맞춘다. 단, 뚜껑이 있는 기물일 때에는 사포 가루를 물에 개어 유리판에 펴 놓고 면을 수평으로 맞추어 문지르듯 갈아 맞춘다. 이후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6시간 이상 건조시킨다. 잘 건조된 백골에 흑칠을 테레핀으로 희석해 얇게 칠한 후 칠장에서 건조시켜 사포로 갈아준다. 여기까지가 자개 문양을 장식할 밑 작업 과정으로 기물의 표면을 매끄럽게 수평을 만들어 주는 기초 공정이다.

면접에서 나전장은 자신의 나전칠기 제작에 45단계의 공정이 적용되는데 4~5년의 시간이 흐른 뒤 베를 발랐던 자국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에 가장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였다.

나전칠기는 제작하는 사람마다 제작 공정이나 순서가 조금씩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45공정인데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작품이 완성되고 4~5년이 지나고 난 후 베를 발랐던 자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작업 과정 중 베를 바른대든지 토회를 바르고 완전히 습을 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죠. 그 이유는 본래 나전칠기 공정 하나하나 시간이 드는 작업이고 특히 토회를 바르고 습을 완전히 뺄 때까지 오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는 그렇지 못할 경우 문제가 생기고요

이와 같은 나전장의 언급은 수공예로 이루어지는 베 바르기의 과정을 포함해 나전칠기의 완성도는 시간이 걸리는 공정 중 어느 단계에도 소홀함이 없이 기본을 충실히 이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2) 줄음질 제작 과정

줄음질 제작 과정은 밑그림 그리기, 자개 선별하기, 가본 뜨기(자개 모양 떼내기), 자개 본뜨기, 자개에 본뜬 투명지 붙이기, 주름질 하기(자개 오리기), 붙임질하기로 이루어진다.

줄음질을 제작할 때는 한 겹만 오리는 방법과 여러 장을 겹쳐 오리는 방법이 있는데 나전장과의 면접에서는 외겹 자개 단독 문양 제작 과정인 한 장의 자개를 오리는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원하는 문양을 디자인 후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밑그림 위에 투명지를 놓고 제도용 펜으로 베긴다. 사용할 자개를 선별하여 투명지에 대고 자개의 모양을 본을 뜬다. 자개를 선별할 때는 문양에 맞게 자개의 색깔이나 종류를 선택해야 한다. 자개 모양을 본뜬 투명지를 밑그림 위에 놓고 자개 모양에 따라 그린다. 이때 자개 모양에 따라 밑그림을 나누어 그려주어 자개의 손실을 막는다. 밑그림이 그려진 자개 모양의 투명지를 자개 모양과 일치하도록 풀로 바른다. 실타를 이용하여 자개를 오린다. 오려진 자개를 밑그림 위에 투명 유산지를 놓고 밑그림에 맞춰 풀로 붙이는데 이를 붙임질한다고 한다. 이렇게 제작된 자개 문양을 옷칠로 바탕을 만들어 놓은 면에 장식한다.

3) 자개 장식과 마무리 과정

자개 장식과 마무리는 아교풀 칠하기, 교접하기, 지짐질하기, 종이 떼어내기, 아교 뭉개기, 아교 풀 빼기, 자개 손보기, 뭍은 칠하기(생칠 메기기), 1차 토회칠 바르기, 2차 토회칠 바르기, 솟들 물갈기(면 고르기), 초칠하기, 중칠하기, 상칠¹¹⁹⁾하기, 자개 굽기, 상칠 면 갈기, 초벌 광내기, 칠 땀하기, 색칠하기, 재

별 광내기, 조각하기(살치기), 자개 먹물 넣기, 접칠하기, 마지막 광내기 과정이 포함된다.

먼저 아교풀을 고르게 칠한 면에 제작한 자개 문양을 붙이고 물수건으로 눌러 접착시킨 후 자개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굳힌 후에 인두를 이용해 자개면의 투명지 위를 눌러 지짐질을 한다. 이때 자개가 틀어지거나 타지 않도록 온도 조절을 잘해야 한다. 지짐질이 끝나면 투명지 위를 뜨거운 물로 적신 후 투명지를 벗겨낸다. 이때 자개 문양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다음 자개 문양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한 번 더 자개 문양 위에 아교 농도를 아주 묽게 하여 발라 건조시킨다.

자개가 잘 붙고 완전히 건조되었으면 다시 뜨거운 물을 이용해 아교를 재빨리 제거하고 차가운 물로 행군다. 마른 수건으로 닦아 다시 건조시킨 후 떨어진 자개가 있는지 확인한다. 자개의 손질이 끝나면 생칠을 테레핀으로 희석해서 얇게 발라주는데 이 과정은 자개의 접착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습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는 생칠과 토분을 섞어 두 번에 걸쳐 토회칠과 사포를 반복한다. 평찰기법 시에 사포로 면을 갈 때는 면이 고르게 맞춰지는지 확인하고 물사포를 한다. 그다음으로는 옷칠의 색깔을 정해 초칠, 중칠, 상칠의 순서로 칠하고 칠장에 건조시킨 후 물사포 작업을 한다. 칠이 덮힌 문양을 칠 굵기 칼로 긁어내고 상칠한 면을 부드러운 사포로 높낮이를 맞추며 물사포한다.

마지막 과정으로 칠면과 자개의 광내기 작업을 위해 콩기름에 토분을 혼합해 솜으로 문질러 광을 내는 초별 광내기를 시작으로 옷칠을 수정하거나 색을 칠할 곳에 색칠을 해주고 건조 후 광약으로 다시 광을 내준다. 때에 따라 조각도로 선을 내기도 한다. 이 자개 조각하기(살치기)가 끝나면 먹물을 솜에 묻혀 이 부분을 문질러 문양을 더욱 선명하게 한다. 생칠을 솜에 묻혀 면을 문

119) 상칠은 나전칠기 제작 과정 중 마지막 칠 작업을 말한다.

지르고 문힌 칠을 닦아 칠장에서 건조 시키고 숨에 콩기름을 문혀 마지막 광내기 작업을 한다.

이상과 같이 나전칠기 제작 중 줄음질 기법은 반복적인 공정과정을 포함해 문양 제작의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나전장은 45단계의 긴 공정과정에서 한 공정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용도에 맞게 제작한 나전칠기가 오랫동안 변함없이 보존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었다. 나전칠기가 완성되기까지 오랜 공정과정에서 느껴지는 장인정신은 현대사회에서 제고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4. 나전칠기문화의 변화와 발전

다음은 이형만 나전장과 이수자 2명 그리고 교육생 4명을 대상으로 나전칠기문화의 변화와 발전에 관해 면접을 시행한 결과, 나전칠기문화의 지속과 변화 그리고 발전 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범주화되었다.

1) 나전칠기문화의 지속과 변화

교육생 B(40대 여성)는 나전칠기에 관한 활동으로 전시출품과 공모전에 도전하고 있다. 원래 나전칠기를 좋아해 집에 자개 가구를 가지고 있으며 소목을 하는 남편이 권유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교육생 B는 나전칠기의 전통 기법은 변화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통기법이 변화해야 한다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변화가 되겠지만 저는 변화되지 않는 쪽을 좋아합니다.

교육생 C(50대 남성)는 현재 나전칠기 교육과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 나전칠기를 알릴 수 있는 교육 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싶으며 해외에 나가 나전칠기 교육을 할 계획도 갖고 있다. 교육생 C는 나전칠기의 전통기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젊은 층의 종사자들이 늘었다고는 하나 개인 공방을 차려 꾸려나가기 위해... 옷칠 과정이 빠진 자개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나전칠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맥이 이어져 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전통적인 방법 안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어 후세들에게 이어졌으면 합니다.

교육생 D(30대 여성)는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관련 일을 업으로 삼고 싶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전칠기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교육생 D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나전칠기에 있어 전통기법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변화가 된다면 사실 전통기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는 완전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편리하고 간소화된 방법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옛날에는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을까 하고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수자 B(50대 여성)는 원주에서 옷칠과 칠화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그녀는 나전칠기문화의 변화에 있어 재료와 도구의 측면에서는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나전칠기의 기본 토대는 정확히 배워서 알아야 함을 강조했다.

저는 전통은 고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작업하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도구나 재료가 새로운 것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호칠을 만들 때 찹쌀풀을 쓰는데 지금은 찹쌀풀을 쓰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만들어져 나오는 거를 그대로 사용하죠. 근데 그런 거는 굳이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도 그게 베가 붙여지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나쁜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다만 전통적인 방법을 알고서 이용을 하면 되죠. 시간이 없거나 진행을 좀 빨리하고 싶어 할 때는 허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런 걸 다 용납을 안 하세요. 토회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것저것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걸 되네, 이걸 안 되네.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죠... 기본 작업을 튼실하게 제대로 하면 나중에 하는 작업은 칠을 하거나 장식을 하거나 다 잘 나오는데 밑에 작업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 아무리 위에서 잘해도 그게 사상누각이 되니까 기본 토대를 알고 지키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까지도 선생님들에게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배울 때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요.

한편 현재 교육과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이수자 A(50대 남성)는 나전칠기문화의 변화 요인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를 언급했다.

구매자에 따라 작업하는 백골의 디자인도 달라졌고 장식되는 자개의 문양도 다르죠. 전통적인 문양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현대적인 문양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 따라 백골이나 자개를 사용하는 기법 등이 변화될 수밖에 없죠.

이형만 나전장도 시기에 따라 나전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와 인식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인공적인 합성 재료로 손쉽게 제작되는 나전칠기에 대해

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6.25를 겪은 후 1960년대 시작으로 1970년대 나전칠기가 왕성하게 발전하는 시기였죠. 조금 여유가 생긴 일반인들이 너도나도 부의 상징처럼 나전칠기를 가지고 싶어 하였고 수요에 맞추려 하다 보니 대량생산 체제에 접어들었습니다. 알고 보면 나전칠기가 아니라 값싼 합성 칠이나 캐슈 칠¹²⁰⁾을 하고, 토회칠이 아닌 흰가루를 만들어 바른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제작되어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물건이 되었죠. 더구나 1980년대에 접어들어 아파트 문화로 불박이 농이 자리를 잡으니 자개농은 더 이상 필요도 없고 촌스러운 유물이 돼 동네 골목 여기저기에 버려지는 신세가 되었죠. 이것이 나전칠기의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만든 계기일 것입니다. 공예작품이라든지 예술품이라든지의 개념이 아니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이 된 거죠. 나전칠기의 가치가 왜곡이 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나전칠기의 인기를 타고 다시 캐슈 칠이나 우레탄 같은 걸 바르고 절삭기계를 이용해 자르고 붙여 이틀이면 만들어 내는데 작가의 양심에 맡겨야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들도 비싸면 안 사고 싼 걸 사 쓰다가 안 좋으면 버리고, 거기에 맞추려니 또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것이 문제죠.

이로 보면 시기에 따라 소비자들의 나전칠기에 대한 선호와 가치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전칠기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와 표기가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의 나전칠기문화에 대한 왜곡의 우려도 존재한다.

종합하면 나전칠기문화의 지속과 변화에 있어 나전칠기를 제작하는 전통기법은 보전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반면 나전칠기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와 도구, 나전칠기에 대한 소비자들이 가치 인식 그리고 이들의 선호에 따른

120) 캐슈(cashew) 칠은 캐슈 열매인 캐슈너트 껍질에 함유된 액을 주원료로 한 유성도료이다.

디자인과 문양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2) 나전칠기문화의 발전 방안

(1) 나전칠기 교육을 통한 전수

이형만 나전장은 나전칠기문화의 역사와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여러 창구가 마련되어 다방면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나전칠기의 전통을 잃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독일의 경우 박물관을 만들면서 그 지역 후원회가 결성되어 교류학생을 해외로 보낸다든지 지원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있었던 교육기관마저 없어지니 아쉬움이 있고요. 외국에서 오히려 나전칠기의 인기가 많고 배우러 들어오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수자 A(40대 남성)도 나전칠기의 가치로 희소성과 고유성을 들면서 전승분과 중 보유자가 없는 분과도 있는데 한국전통문화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위해 전승 교육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노력으로 준비를 먼저 진행한 후 정책적으로나 기관단체의 지원을 요구하는 게 옳다고 했다. 교육생들에게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본인도 뒤쳐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수자 B(50대 여성)는 나전칠기문화의 발전 방안으로 관련된 학교나 학과가 설립되어야 젊은 세대가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금은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학과가 다 없어졌잖아요. 대중성이 그

만큼 떨어져서 그랬다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젊은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이어갈 수 있는 곳이 개인 공방인데 찾아온다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나 학과가 설립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사하게 교육생 B(40대 여성)도 나전칠기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아지는 것이 나전칠기문화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나전칠기문화가 더욱 발전되기 위해서는 일회성의 원데이 클래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다. 수많은 공정과 과정이 필요하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화이고, 이런 문화를 전승하고 계신 무형문화재가 있다는 것, 평생 나전칠기와 함께하신 선생님의 삶도 많이 알릴 수 있는 중간 세대들이 많았으면 해요. 또한 전통공예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나전칠기문화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한편 교육생 C(50대 남성)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의 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나전칠기문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배우려고 하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교육을 시키는 교육자들도 탄탄하게 교육을 받은 자로 많은 수가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수자 B(50대 여성)는 옷나무 산지인 원주의 지역적 특성으로 옷칠을 한 생활 도구를 만들기 위해 배우러 오는 일반인들의 관심에 대해 언급했다.

옷나무 서식지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이고 옷칠로 워낙 알려져 있

으니 시민들 자체도 다른 지역보다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학생들은 생활에 쓸 수 있는 옷칠을 하고 싶어 하고 옷칠이 좋다고 하니까 오셨다가 거의 장식 부분까지 이제 배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하면 할수록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15년, 20년 되신 분도 많아요. 취미로 하시면서 공모전에도 응모해서 수상도 하시고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2) 나전칠기 연구 개발의 노력

이수자 A(40대 남성)는 나전칠기문화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의 노력이라고 보았다. 오늘날 해양오염으로 재료가 고갈되어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뉴질랜드, 버마, 인도네시아 등에서 재료를 구입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것이 아니라 좀 더 색다른 재료 등을 개발하고 연구해 나가는 게 임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수자 B(50대 여성)는 나전칠기 작업에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구상, 색상, 조화에 대한 연구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저는 전통공예를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자개도 선을 따듯이 칠화도 선을 다 따고 그 안에 색을 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을 긋지 않은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칠화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에요. 칠화는 한 땀 한 땀 그러서 딱 봤을 때 한 번에 끝까지 다 완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나와야 해요.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구상, 색상, 서로 이질감 생기지 않게 자연스러움이 나올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이 제일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숙제이구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알아요. 그게 어떤 건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됐는지 충분히 아세요.

(3) 대중의 나전칠기에 대한 가치 인식

교육생 A(20대 여성)는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 처음 목공을 시작했다가 우연한 기회로 부여에 있는 교육원에 입학해 나전칠기를 공부하게 되었다. 현재 직접 공방을 운영하며 나전칠기 문화상품을 개발 중이다. 나전칠기문화의 발전에 대한 견해로 교육생 A는 대중들이 나전칠기를 공예품으로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중들의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전칠기를 일반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공예품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풍조가 이어져야 하는 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한 면도 있고 많이 아쉽죠. 나전칠기 문화상품 개발자로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거나 전통기법이 아닌 자개상품을 개발하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스스로도 거부반응이 심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소비자와 가까워지고 자개상품을 통해 나전칠기의 전통적 기법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중간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교육생과 공방운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D(30대 여성)는 인간에게 무해한 재료와 기법으로 완성되는 전통문화로서 나전칠기의 가치를 대중들이 높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전칠기는 자연에서 나는 재료들로 장인이 한땀 한땀 공을 들여 만드는 무해한 작품 같은 귀한 물건입니다. 그렇기에 옛 역사 속에서도 귀한 분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그런 무해한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기계의 공을 더 많이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가격은 낮아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나전칠기의 품격과 가치도 함께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중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만의 귀한 전통문화이니만큼 우리나라 사람들부터

나전칠기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간에게 무해했던 전통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통의 방법으로 만드는 전통기법의 나전칠기문화를 이어감으로써 한국의 나전칠기의 가치도 높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나전칠기에 대한 국가의 지원

나전칠기문화의 발전 방안으로 이형만 나전장은 국가의 주도적인 지원을 언급했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꾸준한 연구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기술을 제대로 전수할 수 있는 매체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생 C(50대 남성)도 나전칠기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을 견해로 밝혔다.

전통공예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교육기관이 필요하고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맥이 이어져 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전통적인 방법 안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어 후세들에게 이어졌으면 합니다.

이상과 같이 나전칠기문화의 발전 방안에 있어서는 전통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위해 문화적인 역사와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전승 교육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이를 위하여 관련된 학교나 학과 설립 등 나전칠기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아지는 것 이외에도 일반인들

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의 장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재료와 디자인 등의 연구 개발 노력과 대중들의 나전칠기에 대한 가치 인식도 요구되었다. 이와 더불어 인간에게 무해한 천연재료와 전통적인 기법으로 완성되는 한국 전통문화로서 나전칠기의 가치가 보다 높게 인식되어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나전칠기문화에 대한 탐구를 통해 현시점에서 나전칠기의 문화적 전승의 가치를 조명하고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1966년 6월 29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칠기장으로 김봉룡(1902~1994)이 등록되었다. 1995년 3월 16일 제10호 나전칠기장과 제54호 꿇음장이 통합되어 제10호 나전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6년 12월 10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줄음질 보유자)으로 이형만이 등록되었다. 2024년 5월 17일부터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무형유산 제10호 나전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전장의 생애와 전승에 있어 이형만은 기술양성소에서 전문적인 미술교육으로 기초를 다졌고, 군 제대 후 원주에서 스승 곁에 머물며 옷칠과 자개뿐 아니라 나전칠기에 대한 전반적인 안목을 키우는 교육을 받았다. 나전장은 끊임없는 연구 개발, 변화하는 물결에 대한 적응 그리고 작품에 대한 정직한 노력의 중요성을 나전칠기를 만드는 철학으로 갖고 있었다. 현재 그의 뒤를 이어 이수자들과 교육생들이 나전칠기를 전승해나가고 있었다.

나전장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나전칠기의 재료는 과거의 것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백골과 자개를 고르는 안목이 중요했으며, 재료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작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기본이 되었다. 또한 나전장의 제작 도구는 다른 작업자들의 것과 거의 유사했으나 자신이 만드는 나전칠기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붓의 길이를 조정하는 것처럼 직접 도구를 제작하기도 했다. 나전칠기 제작 중 줄음질 기법은 반복적인 공정과정을 포함해 문양 제작에 있어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노력이 요구되었다. 나전장은 45단계의 인내가

요구되는 긴 과정에서 한 공정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용도에 맞게 제작한 나전칠기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었다. 나전칠기가 완성되기까지 오랜 공정과정에서 느껴지는 장인정신은 현대사회에서 제고되어야 할 가치가 있었다.

한편 나전장과 이수자 그리고 교육생을 대상으로 나전칠기문화의 지속과 변화에 관해 면접한 결과, 나전칠기를 제작하는 전통기법은 지속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반면 나전칠기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와 도구, 나전칠기에 대한 소비자들이 가치 인식 그리고 이들의 선호에 따른 디자인과 문양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한국 나전칠기의 문화적 전승은 여러 세대에 걸쳐 공동체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재창조하며 전수해온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적 가치와 우수한 공예 기술이 응집된 유형문화유산으로서의 예술적 가치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나전칠기는 본래 인간에게 무해한 천연의 재료와 수공예 기법으로 제작이 이루어져 왔던 점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적 가치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나전칠기문화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면 첫째, 국가무형유산인 나전장을 중심으로 나전칠기문화를 보전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수자와 교육생 그리고 향후 이수자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승교육사의 지정과 활동, 전문화된 나전칠기 학교나 학과 설립 그리고 나전칠기 교육 후에 연결될 수 있는 진로 개발 등의 교육적 제도와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오늘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나전칠기의 디자인과 문양을 파악하는 조사, 나전칠기에 사용되는 천연재료와 인공적인 화학 재료처럼 변화하는 재료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안정성 평가, 전통적인 도구와 사용이 병행될 수 있는 현대적인 도구 개발 등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일반 소비자들이 나전칠기를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체험 교육의 장이 형성되고 나전칠기문화의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가 이루어

저 이들의 가치 판단과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나전칠기가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 K-Craft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상품의 산업적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도 요구된다.

본 논문은 한국 나전칠기문화를 전승해나가고 있는 나전장, 이수자,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속과 변화 그리고 발전에 관한 견해를 파악한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각 시도의 나전장을 비롯해 전수자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행되지 못한 점과 줄음질 기법에서 외접 자개 단독 문양 제작 과정만을 기술한 한계를 갖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한국 나전칠기문화를 조명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권상오(1997), 칠공예, 천연칠의 매력과 표현기법, 서울: 조형사.
- 권상오(2015), 나전공예, 대원사.
- 김성수(2013), 옷칠, 나늬.
- 손대현(2006), 전통옷칠공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유성웅(2014), 나전장. 전주국립무형유산원.
- 이종석(1989), 한국칠기이천년, 국립민속박물관.
- 이종석(1998), 한국의 전통공예, 열화당.
- 임영주(2021), 한국의 전통문양, 대원사.
- 정대영(2012), 조선의 나전, 동인방.
- 정해조(2006), 나전장, 국립문화재연구소, 민속원.
- 조훈상·김미라·김정은·이희승(2021), 한눈에 보이는 옷칠,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 최영숙(2021), 나전장 :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14,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논문>

- 고경록(2024), 한국공예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육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
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대웅(1978), 한국나전칠기의 연구: 기법과 무늬의 상관성,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현정(2008), 나전칠기의 미적 특성을 응용한 웨딩드레스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수영(2019), 타찰(打擦)기법을 이용한 나전칠기 소품 제작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준(2015), 나전칠기 기법을 응용한 소품 디자인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유경(2022), 가치사슬 관점에서 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공예문화 산업 진흥 정책사업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유니아(2016), 조선나전사와 한국 근대 나전칠기, 문화재 49(2), pp.122-141.
- 노유니아(2020), 공예라는 전통과 캐논의 성립: 고미술과 미술공예, 문화재 53(3), pp.128-141.
- 마가상(2021), 칠 예술을 이용한 제품 디자인 연구: 나전 칠기 기법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상혜(2022), U.V.E.C.(Understand, Value, Enjoy, Create) 문화재교육 정립을 위한 문화재교육 목표 연구, 문화재 55(4), pp.278-294.
- 박수경(2015), 칠보공예문화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민성(2023), 평탈기법을 활용한 칠기(漆器) 작품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희경(2013), 조선 후기 나전 유물에 관한 연구: 나전베갯모(민속 1172)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4), pp.403-414.
- 양혜함(2023), 한중일 나전(螺鈿) 문양에 대한 비교 및 디자인 재해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석·문용린(2006), 전통적 인적자원의 소멸과정에 관한 연구, 교육사학연구 16, pp.65-86.

- 유희정(2022), 조선 후기 책가도의 책갑 문양을 활용한 문화상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웅(2002), 줄음질기법을 이용한 칠예작품연구, 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웅(2009), 나전 줄음질기법의 제작공정과 용어의 정립, 조형디자인연구 12(1), pp.111-128.
- 이광웅(2009), 조선시대 나전칠기 문양의 조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0(2), pp.311-318.
- 이선주(2019), 순정효황후 주칠나전가구의 제작기법적 고찰, 미술사연구 36, pp.33-50.
- 이형만(2000), 한국 전통 나전칠기의 예술성, 아시아민족조형학보 1(1), pp.111-117.
- 이형만(2003), 줄음질에 사용되는 자개의 특성 고찰, 아시아민족조형학보 4, pp.38-53.
- 이형만·김예풍(2003), 줄음질에 사용되는 자개의 일반적 고찰, 아시아민족조형학보, 아시아민족조형학회 국제학술대회자료집, pp.19-36.
- 이희승·최선태(2019), 나전·옷칠공예 활성화 방안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22(4), pp.311-332.
- 임승택(2016), 나전장 김봉룡 칠화 작품의 조형 분석, 한국가구학회지 27(3), pp.185-196.
- 장여미(2018), 조선전기 나전칠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서희(2021), 일제강점기 공예품 연구: 관광기념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종철(1997), 나전칠 장식등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예린(2021), 전통민화의 이미지를 활용한 문화상품 실태 연구: 화조화(花

鳥畫)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팽잠심(2023), 한국과 중국 나전칠기의 비교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최공호(2017), 金奉龍의 나전기술과 근대 공예적 성취, 미술사연구 32,
pp.167-187.

최선태·이희승(2019), 나전·옷칠공예 활성화 방안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22(4),
pp.311-332.

최예중(2017), 전통소재의 나전칠기 기법을 활용한 가구디자인 선호도 조사 분
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단아(2020), 일제강점기 나전칠기 정책과 제작 연구, 무형유산 9,
pp.187-221.

<인터넷 사이트>

EBS다큐. <https://www.youtube.com/@EBSDocumentary>

YTN Korean. <https://www.youtube.com/@YTNKOREAN>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가유산청전자도서관. <https://library.cha.go.kr>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국립공주박물관. <https://gongju.museum.go.kr>

국립문화재연구원. <https://www.nrich.go.kr/kor/index.do>

국립민속박물관. <https://www.nfm.go.kr/>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site/main/home>

국립해양박물관. <https://www.mmk.or.kr/>

나무위키. <https://namu.wiki/>
네이버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main>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aver?blogId=dlrrb0108>
네이버블로그. <https://m.blog.naver.com/dlrrb0108/222062575949#>
대원사. <https://m.post.naver.com>
데이터랩홈. <https://datalab.naver.com/>
매일경제. <https://www.mk.co.kr/>
문화포털. <https://www.culture.go.kr/index.do>
브랜드브리프. https://www.brandbrief.co.kr/image/logo/toplogo_20201007042415.png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통영옷칠미술관. <http://www.ottchil.or.kr/>
한국문화정보원. <https://www.kcisa.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aks.ac.kr/>

ABSTRACT

A Research on the Korean Najeon Lacquerware

Jo, Sookhee

Korean Cultural Contents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and Arts

Sungshin University

Najeon lacquerware is one of Korea's traditional lacquerware decorative techniques, which involves applying lacquer to an object. It is a process that sui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 decorating and gluing mother-of-pearl on top of it, and finishing it with lacquer. As Korea's traditional and original najeon lacquerware culture has gained attention in the world, it is being re-evalua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the Korean najeon lacquerware culture to shed light on the value of cultural transmission and to find ways to develop it further. For this purpose, I conducted interviews with Lee Hyung-man,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0, two practitioners, and four trainees on the transmission and change of Korean najeon lacquerware culture in 2024. I explained the purpose and process of the study to interviewees individually before the interview and they consented to participate in the interview.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one-on-one from April 22 to May 6, 2024 as semi-structured interviews.

I categorized the data into the life and transmission of Najeonjang, materials and tools of najeon lacquerware, juleumjil technique of Najeon lacquerware,

and changes and development of najeon lacquerware culture.

First of all, najeonjang Lee Hyung-ma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nstant research and development, adaptation to changing tides, and honest endeavor in his work as a philosophy for creating Najeon lacquerware. Besides these, he underlined the importance of passing these techniques on to his students and trainees.

Secondly, Najeonjang Lee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having a discerning eye in choosing the materials, such as baekgol(wood for production) and mother-of-pearl, and made it a basic rule to check the materials before starting the production process. He also made his own tools to suit the needs of the lacquerware he was making.

Third, Najeonjang Lee stressed the importance of not neglecting any of the 45 steps in the process which requires significant patience. Furthermore, he has researched how to preserve the product without changing its purpose.

Fourth, while najeon masters and trainees expressed the view that the traditional techniques for making najeon lacquerware should be preserved, they also mentioned the need for changing the materials and tools used, the perception of value consumers have for najeon lacquerware, and the designs and patterns they prefer.

From the above, it can be seen that the cultural transmission of Korean najeon lacquerware has both historical value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at it has been continuously recreated and passed on by community members over generations, and also artistic value as a 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excellent craftsmanship styles converge. In addition, Korean najeon lacquerware has a sustainable environmental value as it was originally made with natural materials and handmade techniques that are harmless to humans. In order to develop the Korean najeon lacquerware culture with these values, it is necessary to educate people about its unique history through various channels. What is most urgent is to ensure that the tradition is not lost and is preserved for future generations. In addition, to improve the lacquerware production reserch must be conducted in developing technologies, design, color, and harmony of the lacquerware to improve the

perfection of the lacquerware production work. Moreover, places for experiential education should be formed so the public can easily encounter and learn about najeon lacquerware and can thus recognize the value of najeon lacquerware as having a special spirit of craftsmanship. Increasing publicity will also help to raise awareness of the value of najeon lacquerware culture to help the public make value judgments and choic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policies for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cultural products so that Najeon lacquerware can grow as a K-Craft not only in Korea but also overseas.

부록

[부록 1]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연구동의서

[부록 2]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면접지

[부록 3] 이수자와 교육생 연구동의서

[부록 4] 이수자와 교육생 면접지

[부록 1]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연구동의서

연구동의서

연구제목 : 한국 나전칠기문화 연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나전칠기문화의 전승과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을 대상으로 계보, 직접 사용하시는 재료와 도구, 기법, 변화와 발전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는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본 연구에 응답하시는 참여자의 정보와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는 동안 면접 내용을 녹취하고 기록함을 말씀드리며 연구 참여의 중단에 관한 결정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과 진행에 동의하시면 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한국문화콘텐츠전공 석사과정
연구자 조숙희
지도교수 최배영

본인은 연구 참여에 관한 위의 내용을 읽고 숙지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한 본인은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면접 시 응답 내용의 녹취 및 기록과 논문에 기술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부록 2]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면접지

1. 무형문화재 나전장 계보에 대한 질문

- 성함과 출생연도, 직함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언제, 어디서 출생하셨는지요?
- 언제, 어떤 계기로 나전칠기를 배우기 시작하셨는지요?
- 나전칠기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의 계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 현재 선생님의 이수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2. 나전칠기문화에 대한 질문

- 선생님만의 나전칠기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 선생님의 나전칠기 제작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 나전칠기 기법에 있어서 과거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 나전칠기 재료에 있어서 과거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 나전칠기 도구에 있어서 과거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 과거에는 주로 어떤 기물을 제작하셨나요?
- 현재에는 주로 어떤 기물을 제작하시나요?
- 현재 무형문화재로서 어떻게 기술을 전수하고 있으신지요?
- 나전칠기문화 전승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요?
- 나전칠기문화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이수자들과 교육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당부나 바라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요?

[부록 3] 이수자와 교육생 연구동의서

연구동의서

연구제목 : 한국 나전칠기문화 연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나전칠기문화의 전승과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이수자들과 교육생을 대상으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응답하시는 참여자의 정보와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는 동안 면접 내용을 녹취하고 기록함을 말씀드리며 연구 참여의 중단에 관한 결정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과 진행에 동의하시면 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한국문화콘텐츠전공 석사과정

연구자 조숙희

지도교수 최배영

본인은 연구 참여에 관한 위의 내용을 읽고 숙지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한 본인을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면접 시 응답 내용의 녹취 및 기록과 논문에 기술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부록 4] 이수자와 교육생 면접지

- 성함과 직함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출생연도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 현재 활동하시는 지역은 어디인지요?
- 어떤 계기로 나전칠기를 배우기 시작하셨는지요?
- 나전칠기를 배우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 나전칠기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 한국의 나전칠기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왜 나전칠기문화가 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나전칠기 제작의 전통 기법 중 변화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 나전칠기문화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